독파민

정답과 해설

중학 국어

어휘2

문학 개념 어휘

01 운문 ①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18쪽

1 (1) 정형시 (2) 내재율 (3) 운율 (4) 자유시
2 (1) 후렴구 (2) 의성어 (3) 산문시 (4) 외형률
3 ④
4 (예시 문장) 시냇물이 졸졸 흘러서 마을 입구로 들어간다.

1 (1) '정형시'는 일정한 형식과 규칙을 엄격하게 맞춰 작성하는 시로, 시의 표면에 가락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외형률을 지닌 대표적인 시 유형이다.
(2) 자유시나 산문시처럼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시의 내용과 흐름 속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운율을 가리켜 '내재율'이라고 부른다.
(3)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고유의 가락으로, 호흡을 부드럽게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정서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는 요소이다.
(4) '자유시'는 일정한 규칙이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고유한 내용과 정서에 맞춰 행과 연을 자유롭게 나누어 구성하여 작성하는 시이다.

2 (1) 시의 각 연이 끝나는 지점마다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절인 '후렴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과 규칙적인 리듬감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2) '의성어'는 '졸졸'이나 '짹짹'처럼 사람이나 사물 및 자연물이 실제로 내는 다양한 소리를 비슷하게 흉내 내어 표현함으로써 글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말이다.
(3) '산문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형태를 취하지만 글 전체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특유의 호흡과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4) '외형률'은 글자 수나 음보 및 특정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하여 운율이 시의 표면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형성되는 음악적 요소이다.

3 '이리저리'는 반복되는 말 구조나 음성 상징어 특유의 리듬감을 풍기지만, 부사 '이리'와 '저리'가 결합한 지시 부사이다.

오답 노트
❶ '멍멍'은 '개가 짖는 소리.'를 나타내므로 의성어이다.
❷ '우당탕'은 '잘 울리는 바닥에 무엇이 몹시 요란하게 떨어지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이므로 의성어이다.
❸ '번쩍번쩍'은 '큰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의태어이다.
❺ '아장아장'은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찬찬히 걷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의태어이다.

4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의미하는 의성어를 넣어 문장을 만든다.

2회 본문 021쪽

1 (1) ㉡ (2) ㉠ (3) ㉢
2 (1) 평시조 (2) 사설시조 (3) 연시조
3 (1) ○ (2) × (3) × (4) ○
4 ④

1 (1) '가사'는 조선 초기에 나타난 갈래로, 시가와 산문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문학이다.
(2) '향가'는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우리말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기록한 노래이다.
(3) '고대 가요'는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삼국 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 (1) 3장 6구 45자 안팎의 정형화된 시조의 기본 형태를 갖춘 것은 '평시조'이다.
(2) 평시조의 틀에서 벗어나 초장·중장·종장 중 두 장 이상이 길어지는 등 파격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설시조'이다.
(3) 평시조 여러 편이 하나의 제목 아래 묶여 연관성을 지니도록 구성된 시조는 '연시조'이다.

3 (1) '시조'는 고려 후기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대표적인 정형시이다.
(2) '경기체가' 갈래는 주로 고려 고종 때 신흥 사대부(양반 귀족) 계층이 향유하던 노래이다.
(3) '경기체가'는 고려 시대에 발생한 시가 갈래이며, 시조 또한 고려 후기에 발생한 갈래이다.
(4) '고려 가요'는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가 궁중 소악으로 유입된 것으로, 민요적 성격이 강하며 평민들의 진솔한 삶과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다.

4 우리나라 시가 양식 중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고대 가요로, 삼국 시대 초기까지 향가 성립 이전에 불렸다. 다음으로 발생한 것은 신라 때의 노래인 향가이고, 이어서 고려 시대에는 고려 가요가 불렸다. 고려 말기부터 시조가 발달하였으며, 조선 초기에 가사가 나타났다.

더 알아두기 대표적인 정형시, 시조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크게 발전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 형식을 갖추며, 각 장은 4음보의 율조를 이루며 특히 종장의 첫 3음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시조는 작자층이 사대부에서 서민층으로 확대되면서 사설시조, 연시조 등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였다. 조선 후기 사설시조는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과 삶의 해학을 담아내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정형적 미의식과 다양성은 시조가 현대까지 끊임없이 창작되는 한국 대표 시가 양식으로 자리 잡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 「하여가」



02 운문 ②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24쪽

1 (1) 수미상관 (2) 선경후정 (3) 유발
2 (1) ㉡ (2) ㉠ (3) ㉢
3 (1) 시간 (2) 전환 (3) 기승전결
4 ②

1 (1)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에 서로 닮거나 같은 구절을 대칭적으로 연결해 형태적 안정감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2) '선경후정'은 먼저 주변 경치를 그려낸 뒤 화자가 느끼는 내면 감정을 뒤이어 드러내는 구조이다.
(3) '시상의 유발'은 어떤 대상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시적 영감이 솟아나도록 자극하는 방법이다.

2 (1) '공간의 이동'은 시적 장소나 화자가 위치한 장소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펼쳐 나가는 방식이다. 화자의 물리적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새롭게 접하는 장면이나 심상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2) '시간의 흐름'은 시간, 계절, 시대의 변화 과정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순행적 구성이나 계절의 순환 등을 통해 시상 전개에 통일성과 입체감을 더한다.
(3) '시선의 이동'은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 위치나 움직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화자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옮기며 대상을 입체적으로 포착한다.

3 (1) 계절의 변화나 세월의 흐름처럼 시간에 순응하여 시상을 차례로 이끌어 가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이다.
(2) 한 작품 안에서 분위기나 화자의 감정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혹은 절망에서 극복으로 급격히 바뀌는 현상은 '시상의 전환'이다.
(3) 본래 한시에서 비롯하여 '시작 – 전개 – 전환 – 종결'이라는 흐름을 거쳐 주제를 완성해 나가는 4단계 시상 전개 구조 방식을 '기승전결'이라고 한다.

4 1~2행에서는 정답게 짝지어 노니는 '꾀꼬리'의 모습을, 3~4행에서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의 앞부분에 자연 경관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뒷부분에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시상 전개 방식인 '선경후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기승전결'은 시상을 제기하고[기(起)], 이를 이어받아 심화한[승(承)] 뒤, 시상을 전환하였다가[전(轉)], 마무리하는[결(結)] 시상 전개 방식이다.
❸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다.
❹ '공간의 이동'은 시적 장소, 화자가 위치한 장소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❺ '시선의 이동'은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2회

본문 027쪽

1 (1) 도치법 (2) 반어법 (3) 돈호법 (4) 생략법
2 (1) 문답법 (2) 대구법 (3) 설의법
3 ⑤
4 (예시 문장)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환하게 웃었다.

1 (1) '나는 좋아해, 너를.'처럼 문장 성분의 정상적인 어순을 의도적으로 뒤바꿔 쓰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도치법에 해당한다.
(2)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속마음과 반대로 "참 잘했다."라고 표현한 대표적 사례이므로, 본래 의도를 뒤집어 전달하는 반어법이 들어가야 한다.
(3) '아이야'처럼 청자의 이름을 직접 불러 독자나 듣는 이의 주의를 이끌어 내는 변화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돈호법이 알맞다.
(4) 시 구절 끝에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여운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생략법에 해당한다.

2 (1) '문답법'은 화자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2) '대구법'은 어조나 가락이 비슷한 구절을 나란히 배치하여 리듬감과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다.
(3) '설의법'은 다 아는 사실을 의문문 형태로 나타내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수긍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3 제시된 문장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와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는 모순 어법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을 취하고 있으나, 그 속에 인생과 사랑에 대한 참된 진실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역설법이 사용된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대구법'은 비슷한 구조와 가락을 가진 구절을 나란히 짝 지어 문장에 변화와 리듬감을 주는 표현 방법이다. 제시된 문장은 상반된 개념을 통한 모순 표현에 해당하므로 대구법과는 거리가 멀다.
❷ '도치법'은 일반적인 말의 순서를 바꿔 화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문장들은 정상적인 문장 성분의 어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도치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❸ '돈호법'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기법이다. 제시된 문장에는 청자나 대상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❹ '반어법'은 자신이 진정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바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면적 언어 자체에는 모순이 없는 반어법과 달리, 제시된 두 문장은 표현 자체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역설법에 해당한다.

4 '모순 어법'은 의미상 서로 상반되거나 연관성이 희박하여 함께 쓰일 수 없는 말을 결합하는 방법이다. 마라톤 경기가 끝난 후이므로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마음은 기쁜 극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행복한 비명'이나 '달콤한 눈물'과 같이 서로 모순되는 어휘를 나란히 사용하면 모순 어법이 적용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03 산문 ①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30쪽

1 (1) ㉡ (2) ㉢ (3) ㉠
2 (1) 동경 (2) 의지적 (3) 회한
3 (1) 체념적 (2) 경외감 (3) 번민
4 ②

1 (1) '구도적'은 삶의 본질이나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이치와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한다.
(2) '체념적'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3) '회의적'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이나 의심을 품으며 확실성을 따져 보는 자세이다.

2 (1) 간절히 바라고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을 가리키므로, 아이들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꿈을 수식하는 '동경'이 들어가야 한다.
(2) 이미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결단력을 뜻하므로 노력과 어우러지는 '의지적'이 들어가야 한다.
(3)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과 섭섭함을 마음에 담아 두는 감정을 뜻하므로 털어낸다는 표현과 어우러지는 '회한'이 알맞다.

3 (1) "난 뭘 해도 안 돼."처럼 희망을 버리고 정해진 상황에 포기하는 태도는 체념적 태도에 해당한다.
(2) 단순한 감탄을 넘어 대상의 거대함이나 뛰어남에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감이다.
(3) 마음속에 걱정, 근심, 괴로움 등이 산처럼 쌓여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상태는 번민이다.

4 이 시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시가 쉽게 써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을 담고 있다. 특히 제시된 부분에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반성적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구도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시된 부분의 뒷부분에서는 의지적 태도를 볼 수 있다.
❸ 제시된 부분에는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의지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❹ 현실이나 미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희망을 버리고 기대하지 않는 체념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❺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운 심정이 담겨 있을 뿐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회의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더 알아두기 「쉽게 씌어진 시」_ 윤동주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유학하던 윤동주 시인의 고민과 자기 반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시인은 나라를 잃은 현실 속에서 공부만 하며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을 깊이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시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고, 무기력했던 나에서 벗어나 어둠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다진다. 결국 시인은 '등불'을 밝혀 '어둠'으로 표현된 일제 강점기의 힘든 현실을 이겨 내고, 광복이라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전한다.

2회

본문 033쪽

1 ③
2 (1) 과장 (2) 부조리
3 (1) 왜곡 (2) 해학 (3) 풍자
4 예시 문장 이제 그만 백성들을 쥐어짜짜짜 자개나무처럼 괴롭히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1 '풍자'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대상에 대해 공감하며 동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풍자'가 아니라 '해학'이다.

오답 노트

❶ 풍자와 해학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❷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웃으며 폭로하는 것은 '풍자'(㉡)이다.
❹, ❺ 선의의 웃음을 유발하여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해학'(㉣)은 대상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동정(㉤)하는 것이다.

더 알아두기 '풍자'와 '해학'



풍자와 해학은 표현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풍자는 비유나 우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지배층이나 사회의 모순을 간접적으로 비꼬아 드러낸다. 반면 해학은 어리숙한 인물의 행동이나 과장된 상황 설정, 언어유희 등을 통해 인간적인 친근감을 높인다. 풍자가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담은 비판적 웃음이라면, 해학은 삶의 슬픔과 시련을 위로하고 얼러 주는 포용의 웃음이다. 이처럼 두 방법은 웃음의 방식을 달리하여 고전 소설이나 탈춤 등에서 현실 극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2 (1) 사람의 덩치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곰보다 크다라고 표현한 문맥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표현하는 기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과장'이 들어가야 한다.
(2)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치나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일컬어야 하므로 알맞은 단어는 '부조리'이다.

3 (1)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릇되게 바꾸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왜곡'이 알맞다.
(2) 힘겨운 상황에서도 동정과 연민을 바탕으로 웃음을 이끌어 내는 건강한 태도를 뜻하므로 정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해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현실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이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야유하는 어조를 나타내므로 '풍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4 탐관오리의 수탈을 꼬집는 풍자의 메시지를 행동과 발음이 유사한 나무 이름을 엮은 언어유희 형식에 맞춰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사또의 부조리함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앞선 대사의 말장난 리듬을 그대로 이어받아 문장을 완성해 본다.

04 산문 ②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36쪽

1 (1) ㉣ (2) ㉡ (3) ㉢ (4) ㉠
2 (1) 서술 (2) 대화
3 (1) 요약적 제시 (2) 극적 제시
4 ②

1 (1) '배경 묘사'는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재현하는 기법이다. 독자가 마치 이야기 속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 '상황 묘사'는 인물이 처한 환경이나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순간의 형국을 사실감 있게 그려 내는 기법이다. 인물 간의 관계나 사건의 흐름을 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심리 묘사'는 인물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 정서, 혹은 가변적인 감정 상태의 흐름을 포착하여 전달하는 표현이다. 의식의 흐름이나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하여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게 한다.
(4) '외양 묘사'는 인물의 신체적 특징, 용모, 차림새 등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이다. 외형적 특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신분, 삶의 내력을 암시하기도 한다.

2 (1) 장면을 그리는 '묘사'와 달리, 서술자가 인물의 정보나 사건 진행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은 '서술'이다. 서술자가 사건의 경과나 인물의 내력을 말해 줌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가 있다.
(2) 서술자의 개입을 줄이고 인물 간에 주고받는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방식은 '대화'이다.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여 성격이나 대립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3 (1) '요약적 제시'는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이나 인물의 일생을 간략하게 압축하여 서술하는 기법이다. 불필요한 장면을 생략하고 사건의 핵심만을 다루어 이야기의 속도감을 대폭 높여 준다.
(2) '극적 제시'는 희곡의 한 장면처럼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을 보여 주어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기법이다.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배제하여 인물의 성격과 심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한다.

4 밑줄 친 부분은 은은한 달빛, 푸른 나뭇잎, 하얀 꽃송이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밤길의 공간적 분위기를 그리듯 보여주고 있으므로 배경 묘사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인물 간에 주고받는 언어적 소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❸ 인물의 처지나 사건 진행 형국이 아니라 순수한 자연 풍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❹ 인물의 용모나 옷차림 등 외형적 특징을 묘사한 부분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❺ 사건을 요약하거나 압축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회

본문 039쪽

1 (1) 서술자 (2) 삼인칭 (3) 시점 (4) 일인칭
2 (1) ○ (2) ○ (3) ×
3 (1) 일인칭 주인공 시점 (2) 일인칭 관찰자 시점
4 (예시 문장) 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1 (1) '서술자'는 작가가 창작한 가상의 인물로서 작품 내부에서 독자에게 사건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주체이다.
(2) '삼인칭'은 말하는 이(화자)와 듣는 이(청자)를 제외한 제삼의 인물이나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표현이다.
(3) '시점'은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가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4) '일인칭'은 이야기 속에서 화자 본인이나 자신이 속한 무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 표현이다.

2 (1) 일인칭 주인공 시점은 중심인물인 '나'가 스스로 체험한 사건과 내면 심리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하는 서술 형태이다.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여 인물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2)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마치 신처럼 등장인물의 행동, 과거사, 숨겨진 내면 심리까지 모두 파악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인물 간의 관계나 사건의 내막을 독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안내하기에 유리하다.
(3) 삼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작품 내부가 아닌 '작품 밖'에 위치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한다.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배제되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의 태도나 심리를 스스로 추측하며 읽게 된다.

3 (1) 일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곧 사건의 주인공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기에 가장 유리하다.
(2)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주변 인물인 '나'의 시선에 포착된 외적인 행동과 언어만 전달되므로, 정작 주인공의 속마음이나 구체적인 사정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더 알아두기 서술자의 위치와 거리감

소설의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나뉜다. 일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나'로 등장하며, 삼인칭 시점은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을 관찰하고 서술한다. 이때 서술자의 위치와 내면 묘사 여부에 따라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감이 달라진다. 일인칭 주인공 시점은 독자가 인물의 내면에 깊이 공감하여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지만, 삼인칭 관찰자 시점은 외면만 관찰하므로 독자가 직접 심리를 추측해야 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4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을 '그'라고 부르며 심리를 서술하지만,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작품 속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을 '나'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지문의 주인공인 '진우'의 입장이 되어 밑줄 친 문장의 '그'를 '나'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 성분을 호응에 맞게 바꿔야 한다.

05 극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42쪽

1 (1) ㉡ (2) ㉠ (3) ㉢
2 (1) 대사 (2) 해설
3 (1) 지시문 (2) 독백 (3) 장, 암전
4 ③

1 (1) '막'은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의 커튼이 올려지고 내려오는 구분을 기준으로 작품의 큰 단락을 나누는 단위이다.
(2) '희곡'은 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연극의 대본을 의미한다.
(3) '동선'은 연출가나 배우가 무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한 이동 경로이다.

2 (1)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 등으로 분류되며 극 작품을 끌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2) '해설'은 무대 배경, 등장인물, 시대적·공간적 상황 등을 안내하여 극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3 (1) '지시문'은 대사 이외에 무대 장치, 조명,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말투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지문이다. 연출가나 배우가 무대를 실제로 구현하거나 독자가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독백'은 상대방 없이 혼자서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말하는 대사 형태로, 배우 홀로 극 전체를 이끄는 모노드라마의 핵심 표현 기법이다.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나 고뇌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3) 연극에서 막보다 작은 사건의 단위를 '장'이라 하며, 장이 전환될 때는 무대의 조명을 완전히 끄는 '암전'을 활용한다. 암전 상태를 통해 등장인물의 퇴장과 입장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다음 장면으로의 시·공간적 이동을 보여 준다.

4 밑줄 친 흥부의 대사는 놀부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방백'에 해당한다. 여기서 흥부는 놀부 앞에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속마음과 극중 상황에 대한 판단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방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고,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의 행동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답 노트
❶ '대화'는 희곡에서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인데, 밑줄 친 부분은 흥부가 혼자서 하는 말이다.
❷ '독백'은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대사이다. 흥부는 혼자 말하고는 있지만 상대역인 놀부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❹ '해설'은 막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시간, 공간)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❺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동작·표정·심리·말투, 무대의 장치·조명 효과·분위기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관객에게), (놀부에게)'가 지시문에 해당한다.

2회

본문 045쪽

1 (1) 반전 (2) 극대화 (3) 형상화
2 (1) 교차 (2) 심화 (3) 병치 (4) 삽입
3 ③
4 (예시 문장) 기세등등하던 그는 상황이 역전되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1 (1) 관객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충격적인 결말 전개를 가리키므로, 이야기의 흐름을 급격히 뒤바꾸는 '반전'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사투리를 써서 향토감과 친근감 같은 정서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맥락이므로 '극대화'가 가장 적절하다.
(3)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의적'이라는 인물의 속성을 눈에 보이듯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형상화'가 맞아떨어진다.

2 (1)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바쁘게 엇갈리며 번갈아 지나가는 상태이므로 '교차'를 선택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다.
(2) 떠나야 함을 재촉하는 까마귀로 인해 화자가 지닌 이별의 상처와 정서적 고통이 한층 깊어짐을 뜻하므로 '심화'가 들어가야 한다.
(3) 서로 대립하는 비극과 희극이라는 요소를 한 무대 위에 동시에 늘어놓아 삶의 모순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병치'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4) 소설 본문 사이에 '시'라는 색다른 형식의 글을 중간에 끼워 넣어 분위기를 강조하는 기법이므로 '삽입'이 알맞다.

3 이 글은 당시 군담 소설을 읽은 독자들이 작품 속에 그려진 전쟁 장면에서 실제 겪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떠올렸을 법하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뜻하는 '연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반전'은 일의 형세가 뒤바뀜을 뜻한다.
❷ '삽입'은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을 끼워 넣음을 뜻한다.
❹ '극대화'는 아주 커짐, 또는 아주 크게 함을 뜻한다.
❺ '형상화'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을 뜻한다.

4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을 의미하는 '역전'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종합 문제 01~05

본문 046~049쪽

01 ①	02 ①	03 ⑤	04 ③
05 연시조	06 사설시조	07 평시조	08 ⑤
09 ⑤	10 ②	11 ③	12 ⑤
13 삽입	14 병치	15 교차	16 부조리
17 해학	18 ④	19 ①	
20 ① 수능형 ①			

01 '정형시'는 시조나 한시처럼 정해진 규칙과 형식적 틀에 맞추어 작성하는 시이다.

오답 노트

❷ 행과 연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시는 산문시 또는 일부 현대시의 특징에 해당한다.

❸ 행과 연의 구분이 있는 대부분의 현대시는 정형시가 아니라 자유시로 분류된다.

❹ 연과 행의 구분 없이 산문처럼 연결하여 작성한 시는 산문시이다.

❺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써 내려가는 시는 자유시이다.

02 시조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률을 지니며, 형태를 자유롭게 쓴 현대시는 자유시, 줄글 형태로 쓴 시는 산문시로 구분한다.

03 '아장아장'은 움직임이나 모양을 흉내 낸 의태어이다. 따라서 소리를 직접 표현한 단어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

오답 노트

❶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는 음성 상징어의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한다.

❷ '반짝반짝'은 사물의 모양이나 빛을 흉내 낸 의태어로서 음성 상징어에 속한다.

❸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 역시 음성 상징어의 개념에 포함된다.

❹ '짹짹'은 새의 소리를 직접 모방한 단어이므로 의성어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04 가사는 조선 초기에 나타난 갈래로 4음보의 율격을 지니지만, 평시조와 달리 행의 수에 제한이 없는 연속체 양식이다.

오답 노트

❶ 고대 가요는 향가 성립 이전 원시 부족 국가 시대의 제의나 집단 노동에서 유래된 노래이다.

❷ 경기체가는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유유자적한 삶과 학문적 자부심을 노래한 시가이다.

❹ 고려 가요는 민중의 해학,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한 등 민중의 솔직한 감정을 노래하였다.

❺ 향가는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표기 수단인 향찰을 활용해 우리말 문장 구조대로 기록되었다.

05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편의 평시조를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시조 형태는 '연시조'이다.

06 초장과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지고 종장도 함께 길어져 서민들의 삶과 해학을 담아내는 시조는 '사설시조'이다.

07 초장·중장·종장의 3장 6구 4음보라는 기본 정형 틀을 엄격히 지키는 가장 표준적인 시조의 형태는 '평시조'이다.

08 '극대화'는 어떤 현상이나 분위기를 가장 큰 상태로 만드는 기법이며, ⑤는 '극소화'의 뜻에 해당한다.

09 '작고 거대한 불꽃'은 표면적인 뜻은 모순되어 보이나, 겉으로 보이는 작은 불꽃이 사실은 커다란 영향력을 지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역설법'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도치법'은 문장 성분의 정상적인 순서를 뒤바꾸어 표현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다. '나는 먹었다, 밥을.'과 같은 예가 해당한다.

❷ '문답법'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설의법'과는 다르게 질문에 이어 바로 대답이 제시된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그곳이다.'와 같은 예가 해당한다.

❸ '반어법'은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되는 말을 통해 뜻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어질러진 책상을 보고 "정말 깨끗하네!"처럼 말하는 예가 해당한다.

❹ '설의법'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강조하는 기법이다. '내일의 해는 또 떠오르지 않겠는가?'와 같은 예가 해당한다.

10 희망을 버리는 태도인 '체념적'과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인 '의지적'은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의어 관계이다.

오답 노트

❶ 두 단어는 소리가 완전히 다르므로 동음이의어 관계가 아니다.

❸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단어의 의미적 대립이다.

❹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상위어–하위어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❺ 두 단어의 의미가 서로 정반대이므로 뜻이 비슷한 유의어 관계가 될 수 없다.

11 '대화'는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뜻하며, 인물의 차림새나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기법은 '외양 묘사'이다.

12 '방백'은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이다.

13 하나의 글이나 이야기 흐름 속에 다른 내용이나 구절을 중간에 끼워 넣는 구성 방식은 '삽입'이다.

14 둘 이상의 독립된 장면이나 사물을 한 공간이나 흐름에 나란히 늘어놓는 방식은 '병치'이다.

15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나 장면을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치게 교차 배치하여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은 '교차'이다.

16 도리나 이치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는 맥락이므로 알맞은 단어는 '부조리'이다.

17 절망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극복해 내는 정서이므로 해당하는 단어는 '해학'이다.

18 자신의 삶과 과거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는 '성찰'이다.

오답노트

❶ '번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태를 뜻한다.

❷ '무상감'은 인생이나 세상사의 부질없음과 덧없음을 느끼는 감정이다.

❸ '의연하게'는 의지가 굳세어 어떤 외부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이다.

❺ '경외감'은 거룩하거나 위대한 대상을 향해 우러러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19 '회한'은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과 한탄을 뜻하므로, 과거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는 문맥에 '회한'을 쓴 ①이 올바르다.

오답노트

❷ 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에는 기쁨이나 환희가 어울리므로 뉘우침을 뜻하는 '회한'은 맞지 않다.

❸ 난관을 이겨 내는 꿋꿋한 태도에는 의지나 결기가 어울리므로 후회를 뜻하는 '회한'은 부적절하다.

❹ 평화 정착을 위해 확인하는 것은 의지나 합의이므로 지난 일을 뉘우치는 '회한'은 문맥상 통하지 않는다.

❺ 다시 필드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에는 열정이나 투지가 어울리므로 '회한'을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20 앞부분에서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화자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는 시상 전개 방식은 '선경후정'이다.

오답노트

❷ '수미상관'은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을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❸ '기승전결'은 시상을 일으키고, 이어가고, 전환하고, 마무리를 짓는 4단계 구성 방식이다.

❹ '시간의 흐름'은 시간에 따른 순차적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❺ '공간의 이동'은 화자의 시선이나 위치가 장소를 옮겨감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수능형 선경후정 방식은 앞부분의 외부 경치와 뒷부분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호응하여 화자의 정서와 시적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오답노트

❷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에 해당한다.

❸ 인물의 생생한 대화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극적 제시나 대화체 구성의 특징이다.

❹ 앞부분에 화자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선경후정의 경치 제시 후 정서 표출 순서와 반대된다.

❺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인간의 욕심을 대비하는 것은 대조적 시상 전개 및 주제 의식에 해당한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052~053쪽

01 기호지세 **02** 주마가편 **03** 견원지간 **04** 구우일모
05 수구초심 **06** 주마간산 **07** 지록위마 **08** 뒷걸음
09 숭어 **10** 호랑이 **11** 고래, 새우 **12** 까마귀, 배
13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01~06

계	속	기	주	마	가	편	고
연	위	호	마	말	리	식	순
견	원	지	간	수	민	심	후
정	이	세	산	구	우	일	모
만	우	도	남	초	내	새	다
현	아	비	귀	심	천	김	꾀

07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13 예지는 한정판 피규어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 갔으나, 품절되어 사지 못하였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는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라는 속담이 알맞다.

어휘 공부는 글을 읽는 힘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연습이에요.



문학 주제별 어휘

06 대상의 상태와 모습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58쪽

1 (1) ㉠ (2) ㉢ (3) ㉡
2 (1) 짐짓 (2) 오히려 (3) 비로소
3 (1) 아슴푸레 (2) 단숨에 (3) 불현듯 (4) 짐짓
4 ②

1 (1) '넌지시'는 상대가 눈치챌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의사를 표현하거나 다가가는 모양을 뜻한다.
(2) '불현듯'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생각이나 감정이 불쑥 솟아오르는 상황을 뜻한다.
(3) '아득히'는 공간적·시간적 거리감이 아득하여 대상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기억이 아련한 상태를 뜻한다.

2 (1)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태도를 거짓으로 꾸며서 행동해야 하는 문맥이므로 '짐짓'이 들어가야 한다.
(2) 도움을 주었을 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과는 반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오히려'가 들어가야 한다.
(3) 욕심을 버리는 선행 조건이 달성된 후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점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비로소'가 들어가야 한다.

3 (1) 통일 전망대에서 먼 곳에 있는 금강산을 바라보았을 때 형태가 희미하고 아련하게 보이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아슴푸레'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아이돌 그룹이 복귀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하는 문맥이므로 '단숨에'가 적절하다.
(3) 아침에 일어난 순간 예고도 없이 떠나고 싶다는 의념이 불쑥 찾아온 심리 상태이므로 '불현듯'이 들어가야 한다.
(4)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모르는 척 일부러 거짓 태도를 지어 보이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짐짓'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4 '단걸음에'는 '쉬지 아니하고 곧장.'이라는 뜻이므로, 만종역에서 강릉역까지 멈추지 않고 한 번에 도착했다는 맥락상 ② '단숨에'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오답노트
❶ '넌지시'는 드러나지 않게 은근히 행동하는 모양이다. 준말은 '넌짓'으로 쓴다.
❸ '불현듯'은 생각 따위가 갑자기 일어나는 모양이다. '불현듯이'도 같은 단어이다.
❹ '비로소'는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건이나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뜻한다.
❺ '아득히'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까마득하게 멀어 희미한 상태이다.

2회 본문 061쪽

1 ③
2 (1) 가셨다 (2) 흐드러지게 (3) 부산한
3 (1) 스러져 (2) 어스름 (3) 어려 (4) 일었다
4 (예시 문장) 먼바다에서 밀려온 거센 파도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을 쳤다.

1 첫 번째 문장에는 '해나 별 따위가 하늘에 또렷이 솟아오르다.', 두 번째 문장에는 '속에 생긴 것이 겉으로 또렷이 나오거나 나타나다.', 세 번째 문장에는 '살갗에 속으로부터 어떤 것이 우툴두툴하게 내밀어 오르다.'라는 의미의 '돋아나다'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답노트
❶ '가시다'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라는 뜻이다.
❷ '어리다'는 '눈에 눈물이 조금 괴다.', '빛이나 그림자, 모습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❹ '부산하다'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하다.'라는 뜻이다.
❺ '흐드러지다'는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 '매우 흐뭇하거나 푸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더 알아두기 대상의 변화와 양상을 나타내는 어휘

'대상의 상태와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문학 작품에서 정서나 분위기를 형상화할 때 자주 쓰인다.
'어리다'는 다의어로 활용 범위가 넓다. 눈물이 눈에 고이거나 빛이 비치는 모습 외에도 '추억이 어리다', '한이 어리다'처럼 어떤 기운이나 감정이 배어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인다.

2 (1) 직원의 차가운 태도로 인해 존재하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맥락이므로 '가시다'의 활용형인 '가셨다'가 들어가야 한다.
(2) 울릉도 전체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장관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흐드러지게'가 들어가야 한다.
(3) 장터로 떠나기 전 손수 만든 연장들을 서둘러 정돈하고 챙기는 할아버지의 바쁜 동작을 나타내므로 '부산한'이 들어가야 한다.

3 (1) 서쪽 하늘 너머에 떠 있던 붉은 노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빛과 기운이 점점 희미해지며 점차 사라져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스러져'가 알맞다.
(2) 깊은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지 않은 채 조금 어둑하고 푸르스름하게 날이 밝아 오는 정황을 표현하는 명사이므로 '어스름'이 알맞다.
(3) 동생의 얼굴 표정에 피로한 기운이 짙게 드러나 겉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어려'가 알맞다.
(4) 아파트 외벽의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사건이나 현상이 새로이 일어난 정황이므로 '일었다'가 알맞다.

4 '흔들리어 움직임. 또는 흔들어 움직임.'을 의미하는 '요동'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07 옛 여성, 양반, 평민의 삶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64쪽

1 (1) 규방 (2) 옥루
2 (1) 베틀 (2) 시집살이 (3) 길쌈
3 (1) 섬섬옥수 (2) 녹의홍상 (3) 절세가인
4 ②

1 (1) '규방'은 조선 시대 부녀자가 생활하던 공간으로, 유교적 질서 아래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던 사회적 환경과 그 안에서 피어난 여성 독자적 문화의 터전을 나타낸다.
(2) '옥루'는 아름다운 여인의 방이나 옥황상제의 궁궐을 뜻한다. 고전 시가에서 유배된 신하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과 그리움을 천상계의 공간에 비유하여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

2 (1)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전통 기구인 '베틀'이 들어가야 현대 방적 기계의 기원이라는 맥락이 성립한다.
(2) 시집가서 겪는 고난을 뜻하는 '시집살이'가 들어가야 민요에 담긴 여성들의 한과 슬픔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
(3) 실을 뽑고 직물을 짜는 일인 '길쌈'이 들어가야 옷감을 직접 만들어 스스로 물자를 생산한다는 문맥에 부합한다.

3 (1) 가늘고 고운 여인의 손을 비유하는 '섬섬옥수'가 들어가야 비단에 수놓는 동작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2)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라는 뜻의 '녹의홍상'이 들어가야 신부의 화려한 옷차림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상에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절세가인'이 들어가야 미모와 지혜를 칭찬하는 문맥에 알맞다.

4 이 시조는 임이 없어 길기만 한 밤의 시간을 잘라다가 임과 함께하는 짧은 밤에 붙이겠다는 기발한 착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현재 홀로 임을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된 말은 혼자서 지냄을 의미하는 '독수공방'이다.

오답 노트

❶ '길쌈'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화자는 길쌈을 하고 있지 않다.
❸ '처가살이'는 결혼한 남자가 아내의 본가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이르는 말로, 화자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 않다.
❹ '시집살이'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하는 일로, 화자가 시집살이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❺ '행주치마'는 부엌일을 할 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덧입는 작은 치마로, 화자가 행주치마를 입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더 알아두기 「동짓달 기나긴 밤을 ~」_ 황진이

이 작품은 조선 중기 황진이가 지은 평시조로, 임을 기다리는 외로움과 안타까운 정서를 절묘하게 노래하고 있다. 추운 동짓달의 긴 밤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사물처럼 베어 내어 보관했다가, 임이 오신 밤에 연장하여 길게 누리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감각적 표현과 선명한 대립 구도를 통해 연모의 정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뛰어난 작품이다.

2회

본문 067쪽

1 (1) ㉠ (2) ㉢ (3) ㉡
2 (1) 존귀 (2) 고상 (3) 수모 (4) 비천
3 (1) ○ (2) ×
4 (예시 문장) 천한 소인에게 이토록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저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1 (1) '군자'는 인품과 덕식이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신분적 우위를 넘어 유교적 덕목을 실천하는 인격 완성체를 의미한다.
(2) '소인'은 자신을 낮은 위치에 두고 상대를 높여 부르던 겸양의 일인칭 대명사이다. 화자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할 때 쓰인다.
(3) '사대부'는 일반 평민층에 상대하여 문무 양반 지배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조선 시대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계층을 나타낸다.

더 알아두기 고전 문학 작품 속 어휘

고전 문학 작품에서는 인물의 신분과 삶의 태도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양반 중심의 사대부 문학인 시조나 가사에서는 유교적 덕목과 학문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군자, 고상, 존귀'와 같은 도덕적이고 격조 높은 어휘가 자주 쓰였다. 반면 평민들이 즐긴 탈춤이나 판소리, 민요 등에서는 삶의 애환과 고통, 지배층에 대한 해학이 담긴 '비천하다, 조아리다, 수모'와 같은 일상적이고 솔직한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 이처럼 어휘의 쓰임은 당시 계층의 문화와 삶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2 (1) 인간 존엄성과 가치의 높음을 나타내므로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뜻하는 '존귀'가 들어가야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성립한다.
(2) 숲의 맑고 우아한 분위기를 묘사하므로 '품위나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는 뜻의 '고상하다'가 들어가야 운치와 어울린다. '신록'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빛.'을 의미한다.
(3) 남에게 당한 수치와 굴욕을 되갚는 맥락이므로 '남에게 당한 부끄러움과 욕됨'을 뜻하는 '수모'가 들어가야 문맥에 부합한다.
(4) 그의 말투나 행동의 품격이 낮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신분이나 지위, 품격 따위가 낮다'라는 뜻의 '비천'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3 (1) '욕되다'는 부끄럽고 불명예스럽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제시된 설명은 올바르다.
(2) '조아리다'는 고개를 숙여 존경이나 애원을 표하는 행동이므로 상대방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며 원망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4 '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눌리어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진 '황공하다'를 활용하여 지위가 높은 임금님의 위엄에 눌려 두려우면서도 큰 상을 내려 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는 상황에 맞는 대사를 완성해 본다.

08 전쟁과 고난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70쪽

1 (1) ㉡ (2) ㉢ (3) ㉠ (4) ㉣
2 (1) 교전 (2) 분단 (3) 피란
3 ③
4 ②

1 (1) '습격'은 적이나 상대방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공격하여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2) '징용'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강제적으로 일정한 의무에 종사시키는 일을 뜻한다.
(3) '포성'은 대포를 발사할 때 발생하는 거대하고 웅장한 소리를 뜻한다.
(4) '방공호'는 적의 공습이나 포격으로부터 생명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한 방어 시설을 뜻한다.

2 (1) 서로 무기를 들고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전투 상황을 나타내므로 서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함을 뜻하는 '교전'이 들어가야 전선의 긴박한 상황이 드러나는 문맥이 완성된다.
(2) 국토와 민족이 끊어져 서로 오가지 못하는 비극적 상태를 가리키므로 하나였던 것을 둘 이상으로 동강이 나게 끊어 가름을 뜻하는 '분단'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3) 전쟁의 화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이동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므로 난리를 피해 옮겨 감을 의미하는 '피란'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더 알아두기 피란(避亂) vs 피난(避難)

피란 [피할 避, 어지러울 亂]	전쟁이나 난리(亂)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 감. 예 6·25 전쟁 당시 수많은 피란민들이 남쪽으로 향했다.
피난 [피할 避, 어려울 難]	화재, 수해, 지진 등 재앙이나 위급한 재난(難)을 피해 옮겨 감. 예 건물에 불이 나자 사람들은 신속하게 피난을 시작했다.

3 전쟁터에서 국가나 정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므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을 뜻하는 ③ '전사'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장렬히 전사하였다'는 표현은 씩씩하고 장하게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문맥과 가장 매끄럽게 어우러진다.

4 '습격'은 적을 덮쳐 치는 것이고 '후퇴'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답 노트
❶ '포성'과 '포음'은 모두 대포 소리를 뜻한다.
❸ '참상'과 '참황'은 참혹한 상태나 실정을 뜻하는 유의어이다.
❹ '징용'과 '징발'은 강제로 불러 부리는 일을 뜻하므로 의미가 서로 같다.
❺ '전사하다'와 '전몰하다'는 모두 싸움터에서 죽는 것을 뜻하므로 유사하다.

2회

본문 073쪽

1 (1) 분개 (2) 잔망 (3) 유야무야
2 (1) 벼르고 (2) 얼김 (3) 기미
3 ③
4 (예시 문장) 사방이 불길로 가득 막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비참한 형국이었다.

1 (1) 회사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직원들이 몹시 분하고 억울하게 여기는 맥락이므로 '분개'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의롭지 못한 행동이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노여움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어휘이다.
(2) 승재는 그 자리에서 까다롭게 굴거나 잔꾀를 부리며 따지지 않고 여유를 보이는 상태이므로 '잔망'이 들어가야 알맞다. 얌체스럽거나 얄밉게 행동하지 않고 의연함을 유지함을 표현하는 맥락이다.
(3) 반장이 선거 때 약속한 많은 공약들이 흐지부지되며 명확한 결과 없이 사라진 맥락이므로 '유야무야'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어떤 일의 안팎이나 흐름이 뚜렷하지 않게 넘어가는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2 (1) 절호의 기회를 맞아 우승을 거두고자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지는 맥락이므로 '벼르고'가 들어가야 한다.
(2) 포졸들의 서슬에 놀라 당황한 나머지 엉겁결에 입을 열게 된 경황없는 상태이므로 '얼김'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서슬'은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의미한다.
(3) 떠날 때가 되었음에도 출발하려는 행동이나 태도의 징조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 정황이므로 '기미'가 들어가야 알맞다.

3 제시된 두 문장은 공통적으로 인물이 크게 화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서 내는 성을 뜻하는 '역정'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기미'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또는 일이 되어가는 묘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뜻한다.
❷ '얼김'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를 뜻한다.
❹ '형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을 뜻한다.
❺ '유야무야'는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을 뜻한다.

4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을 의미하는 '형국'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더 알아두기 '전쟁과 고난' 관련 필수 현대 소설

- 「장마」_윤흥길: 6·25 전쟁으로 인해 외할머니와 할머니 두 집안이 겪는 갈등과 화해를 다룬 작품이다. 전쟁이라는 이념 대립이 한 가정에 가져온 비극과 참상을 보여 준다.
- 「나목」_박완서: 6·25 전쟁 중 두 오빠를 잃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경아'의 이야기를 다룬 자전적 소설이다. 전쟁이 개인의 삶과 정신에 남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다.
- 「수난이대」_하근찬: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박만도)와, 6·25 전쟁에 참전해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진수)의 이야기이다. 2대에 걸쳐 겪은 민족의 비극을 다루며, 전쟁의 고난을 서로 의지하며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09 출세와 덧없음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76쪽

1 (1) ㉢ (2) ㉠ (3) ㉡
2 (1) 강호 (2) 연하 (3) 홍진
3 (1) 만승 (2) 빈이무원 (3) 삼공
4 ②

1 (1) '단사표음'은 소박한 음식을 뜻하며, 청빈하고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비유한다.
(2) '부귀공명'은 부귀와 출세를 지향하는 세속적 가치를 의미한다.
(3) '안빈낙도'는 가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도를 즐기는 경지를 뜻한다. 안빈낙도는 유교적 선비 정신의 핵심적 가치관이다.

2 (1) 벼슬길에서 물러난 학자가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대자연을 의미하는 맥락이므로 '강호'가 들어가야 알맞다. 자연이나 시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시어로 자주 활용된다.
(2) 시인이 산속 자연경관 중 하나인 안개와 노을을 지칭하여 바라보는 맥락이므로 '연하'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비유하는 표현이다.
(3) 번거롭고 속된 인간 세상의 번뇌와 소란을 피해 은일하고자 하는 맥락이므로 '홍진'이 들어가야 알맞다. '홍진'은 티끌 많은 속세나 세상의 부귀영화 및 속된 일상을 비유한다.

3 (1)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뜻하는 표현이므로 '만승'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만 대의 수레를 내놓을 수 있는 대국의 임금을 이르는 어휘로 높은 위상과 권력을 의미한다.
(2) 가난함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을 품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태도이므로 '빈이무원'이 들어가야 알맞다.
(3)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을 통틀어 지칭하는 맥락이므로 '삼공'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조선 시대 최고 중앙 관직인 삼정승을 이르는 명사이다.

4 이 시조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사대부의 태도가 드러난 작품으로, 자연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부귀공명(富貴功名)'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을 의미하므로, 이 시조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노트

❶ '단사표음(簞食瓢飮)'은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므로, 이 시조에 나타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❸ '빈이무원(貧而無怨)'은 가난하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음을 뜻하므로, 이 시조에 나타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❹ '안분지족(安分知足)'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을 뜻하므로, 이 시조에 나타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❺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을 뜻하므로, 이 시조에 나타난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2회

본문 079쪽

1 (1) 영면 (2) 북망산천 (3) 등용문
2 (1) 비문 (2) 공명 (3) 급제
3 (1) 애도 (2) 영귀 (3) 혼백 (4) 금의환향
4 예시 문장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맑은 웃음을 남긴 행복한 사람

1 (1) 죽음을 영원히 잠드는 것에 비유하여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는 '영면'이다. 단순한 생물학적 사망을 넘어 고인의 안식과 명복을 비는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다.
(2) 무덤이 많은 산이나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곳을 이르는 단어는 '북망산천'이다. 중국 낙양 북쪽의 북망산에서 유래하여 인간 삶의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귀결을 비유적으로 보여 준다.
(3) 잉어가 용문 계곡을 올라 용이 된다는 설화에서 유래하여 출세의 관문을 뜻하는 단어는 '등용문'이다.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적 성공이나 인정을 받는 결실의 기회를 상징한다.

더 알아두기 **'등용문(登龍門)'에 담긴 유래와 설화**

'등용문'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출세의 길에 들어섬을 뜻하는 어휘이다. 중국 『후한서』에 수록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황하 상류에는 물살이 매우 거센 '용문'이라는 협곡이 있는데, 험난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 잉어만이 용으로 변해 승천한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한편, 후한의 학자 이응은 학식과 기개가 높아 선비들의 존경을 받았다.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는 이응의 인정을 받는 것을 잉어가 용문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여 '등용문'이라 불렀다. 오늘날에는 험난한 시험이나 경쟁을 뚫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출세의 관문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인다.

2 (1) 세상을 떠난 위인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돌에 글을 새기는 맥락이므로 '비문'이 들어가야 알맞다. '비문'은 비석에 새겨 후대에 널리 전하는 글이나 기록을 의미한다.
(2) 훌륭한 업적을 세워 역사에 이름과 공로를 널리 알린 상태이므로 '공명'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공명'은 세상에서 얻은 높은 평가와 명성을 나타낼 때 쓰인다.
(3) 이순신 장군이 30세가 넘은 나이에 과거 시험인 무과에 합격한 맥락이므로 '급제'가 들어가야 알맞다. '급제'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3 (1) 오랜 친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맥락이므로 '애도'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뛰어난 지혜와 존귀한 운수를 타고 태어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맥락이므로 '영귀'가 알맞다.
(3) 매우 놀라 정신이 아득해진 상황이므로 '혼백'이 들어가야 '혼백이 빠져나가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성립한다.
(4)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영예롭게 고국으로 돌아온 맥락이므로 '금의환향'이 알맞다.

4 '비문'은 비석에 새긴 글을 의미하고, 죽은 사람의 경력이나 일생을 상징하는 말 따위를 새겨 넣는 서사적 장치이다. 따라서 자신의 묘비에 새길 비문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혹은 훗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다짐이나 일생의 소망을 담아서 쓰면 된다.

10 인물의 행동과 마음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82쪽

1 (1) ㉠ (2) ㉢ (3) ㉡
2 (1) 재우쳐 (2) 수선스럽게 (3) 엄습해
3 (1) 과시 (2) 허장성세 (3) 갈취해
4 ②

1 (1) '재다'는 참을성이 모자라 입놀림이 가볍고 성급함을 뜻한다. 말이나 행동에 신중함이 결여되어 경솔하게 처신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2) '푼푼하다'는 마음씨나 행동이 옹졸하지 않고 매우 너그럽고 시원스러움을 뜻한다. 사람의 성품이나 마음쓰임이 넉넉하고 큼직함을 비유한다.
(3) '수선스럽다'는 주변이 들떠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고 어수선함을 뜻한다.

2 (1) 조급하게 바짝 독촉하는 상황이므로 '재우치다'를 활용하여 '재우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동이나 말을 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하여 다그칠 때 쓰이는 단어이다.
(2) 바람 소리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몰아치는 상황이므로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형 '수선스럽게'가 들어가야 알맞다. 정돈되지 않고 어수선하거나 대단히 분주한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다.
(3) 고독감이나 슬픔 따위의 감정이 덮쳐오는 상황이므로 '엄습하다'를 활용하여 '엄습해'로 표현해야 문맥에 부합한다. 어두운 기운이나 분위기, 강한 감정이 갑자기 밀려드는 것을 나타낸다.

3 (1) 깊은 우정을 남들에게 뽐내어 드러내는 맥락이므로 '과시'가 알맞다. 자신의 능력이나 상태를 남에게 자랑하여 보임을 뜻하는 명사이다.
(2)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만 탕탕 치며 위세를 하강시키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허장성세'를 선택해야 한다. 실속은 없이 겉으로만 기세나 위엄을 꾸며내는 모습을 가리키는 한자성어이다.
(3) 남의 물건을 낚아채어 빼앗아 달아난 상황이므로 '갈취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남의 물건이나 권리를 협박이나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4 밑줄 친 '물러나 바라만 보고'는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보고'라는 의미의 '관망하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과시하고'는 '자랑하여 보이고',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고'의 의미이다.
❸ '재우치고'는 '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하고'의 의미이다.
❹ '푼푼하게'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옹졸하지 아니하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게'라는 의미이다.
❺ '수선스럽게'는 '정신이 어지럽게 떠들어 대는 듯하게', '시끄러워서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듯하게'라는 의미이다.

2회

본문 085쪽

1 (1) 연정 (2) 심보 (3) 침통
2 (1) 울적 (2) 통분
3 (1) 옹졸 (2) 반목 (3) 초조
4 (예시 문장) 오지 마을에 맑은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1 (1) 이성에 대한 사랑이나 애틋한 그리움을 뜻하는 단어를 골라야 하므로 '연정'이 들어가야 알맞다. 주로 누군가를 향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다.
(2) 마음속에 품은 나쁜 꾀나 엉뚱하고 짓궂은 성미를 뜻하는 단어가 와야 하므로 '심보'를 써야 적절하다. 남을 괴롭히거나 어기어 놓으려는 비뚤어진 마음씨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된다.
(3) 패배 후 슬픔과 걱정에 젖어 어둡고 침울해진 마음 상태를 나타내므로 '침통'을 택해야 문맥상 부합한다. 가슴 아픈 일을 겪고 깊은 시름에 빠진 얼굴이나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이다.

2 (1) 시험 결과에 낙담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울적하다'를 선택해야 알맞다. 마음이 탁 막힌 듯 갑갑하고 침울해진 심정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2) 국권 회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순국 지사들의 한스럽고 가슴 아픈 심정을 나타내므로 '통분'을 골라야 적절하다. 몹시 분하고 원통하여 가슴을 치는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뜻하는 단어이다.

3 (1) 도량이 좁고 용납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성품을 뜻하므로 '옹졸'이 들어가야 부합한다. 마음의 크기가 작아 남을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2)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나 마음이 맞지 않아 원망하고 등지는 관계를 뜻하므로 '반목'을 써야 자연스럽다.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며 관계가 갈라진 상황에 쓰이는 표현이다.
(3)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을 애태우고 조마조마해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므로 '초조'가 들어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잘될지 불안하여 마음이 바짝 타들어 가듯 안달이 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매우 반가워하다.'를 의미하는 '반색하다'를 넣어 문장을 만든다.

종합 문제 06~10

본문 086~089쪽

01 (1) 막돼먹은 (2) 조아릴 (3) 돋아나기 **02** ③
03 ⑤ **04** ③ **05** ①
06 ② 수능형 ② **07** ② **08** ①
09 ⑤ **10** ① **11** ④
12 (1) ㉤ (2) ㉢ (3) ㉠ (4) ㉣ (5) ㉡ **13** ③
14 영면 **15** 무상감 **16** 혼백 **17** 갈취하다
18 푼푼하다 **19** 관망 **20** 심보

01 (1) 버릇이 없고 못된 개구쟁이를 뜻하므로 '막돼먹은'이 올바르다.
(2)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뜻하므로 '조아릴'이 알맞다.
(3)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을 뜻하므로 '돋아나기'가 들어가야 한다.

02 '유야무야하다'는 일이 흐지부지되어 없었던 일처럼 되는 것을 뜻한다.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났는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맥상 알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수모'는 모욕을 받음을 뜻하므로 올바른 쓰임이다.
❷ '벼르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올바르다.
❹ '역정'은 성내거나 화를 내는 행동을 뜻하므로 올바르다.
❺ '교전'은 서로 맞서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므로 올바른 쓰임이다.

03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큰소리를 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오답노트
❶ '섬섬옥수'는 가냘프고 고운 여인의 손을 이르는 말이다.
❷ '부귀공명'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을 뜻한다.
❸ '금의환향'은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옴을 비유하는 말이다.
❹ '독수공방'은 혼자서 지내는 것,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뜻한다.

04 시장 바닥처럼 사람이 많고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부산하다'이다.

오답노트
❶ '침통하다'는 슬픔이나 걱정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두운 상태이다.
❷ '울적하다'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상태이다.
❹ '옹졸하다'는 성품이 좁고 마음 씀씀이가 작은 상태이다.
❺ '푼푼하다'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상태이다.

05 안개나 구름 따위가 새로 생겨나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일다'의 활용형인 '일며'를 쓰면 된다.

오답노트
❷ '가시며'는 현상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❸ '요동하며'는 심하게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❹ '황공하며'는 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눌리어 두려운 상태이다.
❺ '흐드러지며'는 매우 탐스럽거나 흐드러지게 만발한 상태이다.

06 '안빈낙도'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며 사는 태도를 뜻한다. 따라서 가난하여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롭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다.

수능형 「상춘곡(賞春曲)」 속 인물은 물질적 가난에 연연하지 않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자세인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오답노트
❶ '금의야행'은 보람 없는 행동을 뜻한다.
❸ '맥수지탄'은 나라가 망함을 탄식함을 뜻한다.
❹ '창해일속'은 지극히 작은 존재를 뜻한다.
❺ '전화위복'은 불행이 복으로 바뀜을 뜻한다.

07 '짐짓'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어이므로 '일부러'와 바꿔 쓰기에 알맞다.

오답노트
❶ '그저'는 특별한 목적 없이 있는 그대로를 뜻한다.
❸ '비로소'는 드디어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야를 의미한다.
❹ '아득히'는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게를 뜻한다.
❺ '불현듯'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을 뜻한다.

08 '만승'은 천자의 지위를, '삼공'은 조정을 이끄는 세 가지 높은 관직을 의미하므로 유의 관계가 아니다.

09 '가시다'는 '상태나 현상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분위기가 가시고 고요해졌다는 ⑤의 쓰임이 올바르다.

오답노트
❶ '통분하다'는 몹시 분하고 억울해하는 것이므로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다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❷ '옹졸하다'는 마음이 좁은 것이므로 딸을 바라보는 정겨운 웃음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다.
❸ '관망하다'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비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❹ '방심하다'는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놓는 것이므로 집중하여 공부를 하였다는 문맥과 반대된다.

10 여인은 사대부 가문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고상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으나, 전쟁으로 인해 피란길에 오르며 이전의 삶이 무상감으로 다가왔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노트
❷ 여인은 포성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울리는 포성 소리에 공포와 두려움(엄습)을 느끼고 있으므로 알맞지 않다.
❸ 여인이 남편과의 이별 후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한 잘못(과오)을 반성하고 있는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맞지 않다.
❹ 규방에서 보냈던 고상한 삶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부녀자로서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려 노력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알맞지 않다.
❺ 피란길에서 참상을 겪으며 무상감을 느끼고 있을 뿐, 현실 타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알맞지 않다.

11 '엄습'은 불행이나 두려움 따위의 어두운 감정이나 상태가 갑자기 들이닥쳐 덮침을 뜻하는 단어이다.

오답노트

❶ '징용'은 국가 비상 사태에 강제로 불러내어 노역에 종사시키는 일 혹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이다.
❷ '피란'은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이다.
❸ '포성'은 대포를 쏠 때 나는 소리이다.
❺ '참상'은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이다.

12 (1) '벼르다'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속으로 기회를 엿보며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켕기다'는 잘못이나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속으로 겁이 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전사하다'는 전쟁이나 싸움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4) '잔망스럽다'는 겉으로 보기에 언행이나 태도가 얄밉도록 촐랑거리거나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5) '수선스럽다'는 마음이나 분위기가 정돈되지 않고 시끄럽게 어수선하거나 분주한 상태를 의미한다.

13 '반색하다'는 '매우 반가워하는 빛을 띠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정서나 태도를 나타낸다.

오답노트

❶ '울적하다'는 마음이 어둡고 답답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❷ '반목하다'는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❹ '분개하다'는 몹시 분하게 여기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❺ '침통하다'는 몹시 슬프고 마음이 아픈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14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사람에 대해 영원히 잠든다는 뜻의 '영면'을 기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평생 이룩한 가문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은 '무상감'이 올바르다.

16 육신과 대비되어 영원히 남아 있는 정신이나 영혼을 뜻하는 단어는 '혼백'이 알맞다.

17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갈취하다'이다.

18 말이나 행동이 다부지거나 넉넉함을 뜻하는 단어는 '푼푼하다'이다.

19 상대방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관망'이다.

20 마음을 쓰는 본바탕이나 태도를 낮잡아 이르는 단어는 '심보'이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092~0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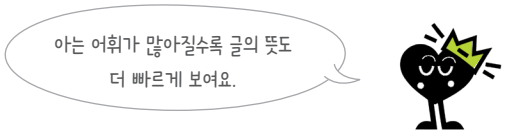
01 자강불식 **02** 불철주야 **03** 분골쇄신 **04** 절차탁마
05 주경야독 **06** 위편삼절 **07** 형설지공 **08** 귀, ㉡
09 호랑이, ㉣ **10** 밥, ㉠ **11** 외손뼉, ㉢ **12** 기러기, ㉤
13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01~06

자	강	불	식	수	불	위
미	연	철	전	광	석	편
분	상	주	경	야	독	삼
제	골	야	산	분	편	절
칠	상	쇄	절	차	탁	마
불	로	장	신	혜	영	신

07 '형설지공(螢雪之功)'은 반딧불·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13 밑줄 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임에도 여러 사람 사이에서 소문이 나자 마치 사실처럼 여겨진 사례이다. 이에 해당하는 속담으로는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세 사람만 우겨 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가 적절하다.



독서 학습 어휘

11 설명과 논증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098쪽

1 (1) ㉢ (2) ㉡ (3) ㉠
2 (1) 대조 (2) 예시 (3) 비교 (4) 논증
3 (1) 연역적 (2) 귀납적
4 ⑤

1 (1)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풀이하는 것이다.
(2)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종류에 따라서 가르는 것이다.
(3)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2 (1) 외모는 닮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두 대상의 차이점을 대비하여 보여 주는 문맥이므로 '대조'가 들어가야 알맞다.
(2) 중력 법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과가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상황이므로 '예시'가 들어가야 알맞다.
(3) 포유류라는 공통점을 지닌 두 대상을 견주는 문맥이므로 '비교'가 들어가야 알맞다.
(4)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논증'이 들어가야 알맞다.

더 알아두기 설명 방법으로서의 '비교'와 '대조'

'비교'와 '대조'는 모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는 방법이지만, 초점이 다르다. 비교는 대상들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견주는 방법이고, 대조는 대상들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견주는 방법이다.

3 (1)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라는 일반적 원리에서 '장미꽃도 광합성을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 사실을 도출하므로 '연역적' 추론을 선택해야 한다.
(2) 개별 고양이들의 구체적 사례들을 관찰하여 '모든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한다'라는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 내므로 '귀납적' 추론을 선택해야 한다.

4 괄호 안에는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자 연역과 귀납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인 '논증'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노트
❶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밝히는 설명 방식이므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논리적 방법을 가리키기에 부적절하다.
❷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 주는 방식이므로, 연역이나 귀납과 같은 추론 방식을 포괄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❸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공통점을 견주어 설명하는 방식이므로, 논리적 증명 방식을 설명하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❹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종류별로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므로,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단어로 알맞지 않다.

2회 본문 101쪽

1 (1) 명료 (2) 짜임새 (3) 보완
2 (1) ○ (2) ×
3 (1) 제기 (2) 반박 (3) 타당성
4 (예시 문장) 토론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론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1 (1)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획안의 핵심 내용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이나 표현이 매우 또렷하고 분명함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명료'가 들어가야 알맞다.
(2) 논설문의 구조인 서론, 본론, 결론이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하나의 완결된 글을 이룬다는 문맥이므로, '짜임새'가 들어가야 한다.
(3) 지난번 보고서에서 미흡하거나 빠져 있던 부분을 채워 완전하게 만들어 다시 제출한 맥락이므로, '보완'이 들어가야 한다.

2 (1) '생성하다'는 '사물이 생겨나다.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다.'를 뜻한다. 제시된 설명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므로 참이다.
(2) '통일성'은 한 편의 글에 쓰인 모든 문장과 단락들이 하나의 중심 주제를 향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제시문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다는 설명은 통일성의 개념에 반대되므로 거짓이다.

3 (1)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뜻을 내놓는 맥락이므로,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을 뜻하는 '제기'가 들어가야 한다.
(2)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안락사 옹호론에 맞서 그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맥락이므로,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반대하여 말함.'을 뜻하는 '반박'이 들어가야 한다.
(3) '타당성'은 주장이나 추론이 이치에 맞아 옳다고 인정될 만한 성질을 뜻한다. 전제가 참이더라도 전제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추론 과정에 비약이 있으면 그 논증은 이치에 맞지 않게 되므로, 논증이 잃게 되는 것은 '타당성'이다.

4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상대방이 제기할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반대 의견.'을 의미하는 '예상 반론'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더 알아두기 논증의 두 가지 방식 — '연역'과 '귀납'

논증에는 크게 연역과 귀납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연역'은 이미 참으로 인정된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 원리에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연역이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귀납'은 이와 반대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을 관찰하여 그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까마귀 A도 검고, 까마귀 B도 검다'와 같은 여러 사례에서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귀납이다. 다만 관찰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12 관점과 가치관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04쪽

1 (1) 찰나적 (2) 주장 (3) 궁극적
2 (1) ㉡ (2) ㉠ (3) ㉢
3 (1) 영리적 (2) 근거 (3) 정책 논제
4 ③

1 (1) 사진 예술의 특성 중 대상의 매우 짧은 순간을 포착하여 담아내는 사진의 특성을 나타내는 내용이므로 '찰나적'이 들어가야 한다.
(2)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문맥이므로 '주장'이 들어가야 한다.
(3) 일제 강점기에 여러 민족 운동가들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조국의 자주독립이었다는 내용이므로 '궁극적'이 들어가야 한다.

2 (1) '가치 논제'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논제이다.
(2) '사실 논제'는 어떤 진술이 객관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는 논제이다.
(3)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 방안이나 해결 방안을 다루는 논제이다.

3 (1)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다는 뜻의 '영리적'이 들어가야 한다.
(2)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주장이 명확해야 하며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참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이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근거'라 하므로 '근거'가 들어가야 한다.
(3) '인터넷 신조어를 국어사전에 등재해야 한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논제이다. 따라서 실행 방안이나 해결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가 들어가야 한다.

4 '순간적'은 '아주 짧은 동안에 있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찰나적'이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사물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한다는 문맥에서, 두 어휘는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핵심 의미를 공유하므로 바꾸어 쓰기에 알맞다.

오답노트
❶ '궁극적'은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❷ '영리적'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❹ '향락적'은 '놀고 즐기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❺ '비영리적'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2회

본문 107쪽

1 (1) 이상 (2) 입장 (3) 추구
2 ②
3 (1) 주관 (2) 상대성 (3) 경직
4 (예시 문장)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포용력이 넓어진다.

1 (1) 화가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예술적 목표나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를 달성하고자 떠난 맥락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뜻하는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2)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수용자나 감상자의 처지 및 관점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관한 견해나 태도.'를 뜻하는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3)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루고자 바라는 대상이므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좇아 구함.'을 뜻하는 '추구'가 들어가야 한다.

2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들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를 다루고 있으므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뜻하는 '견해'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노트
❶ '경직'은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됨.'을 뜻하므로,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문맥에 들어갈 수 없다.
❸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한다. 통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술적·학술적 시각 차이를, 확고한 믿음의 차이로 표현하는 것은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❹ '이상'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뜻하므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 문맥에 들어갈 수 없다.
❺ '상대성'은 '사물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물과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질.'을 뜻하므로, 전문가마다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3 (1)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감상자 개인의 사사로운 관점이나 성향이 감상 내용에 크게 개입함을 나타내므로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을 뜻하는 '주관'이 들어가야 한다.
(2) 시대와 지역이라는 조건에 따라 미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고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다른 사물과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성질.'을 뜻하는 '상대성'이 들어가야 한다.
(3) 사고방식이 딱딱하게 굳어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깨뜨리려는 맥락이므로, '경직'이 들어가야 한다.

4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을 의미하는 '인식'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더 알아두기 '인식'의 짜임
'인식(認識)'의 '인(認)'과 '식(識)'은 모두 '안다'는 뜻을 지닌다. 그만큼 단순히 보고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제대로 아는 것'을 뜻한다.

13 소통과 정보 판단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10쪽

1 (1) ㉠ (2) ㉡ (3) ㉢
2 (1) 존중 (2) 절충 (3) 소통
3 (1) 전략 (2) 예측 (3) 적합
4 ⑤

1 (1) '경청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다.'이다.
(2) '예측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미리 헤아려 짐작하다.'이다.
(3) '달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한 것을 이루다.'이다.

2 (1)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 높이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므로 '존중'이 들어가야 알맞다.
(2) 양측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서로 양보하여 알맞게 조율하고 합치시킨다는 맥락이므로 '절충'이 들어가야 알맞다.
(3)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창구를 늘려 세대 간의 생각이나 기운이 막힘없이 서로 잘 통하게 만드는 상황이므로 '소통'이 들어가야 알맞다.

3 (1) 경연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치밀하게 세운 대응 계획이나 방법을 뜻하므로 '전략'을 선택해야 알맞다.
(2) 날씨 변화를 미리 짐작하여 대비하였다는 맥락이므로 '예측'을 선택해야 알맞다.
(3) 학급 발표 내용의 목적이나 조건에 꼭 알맞은 자료를 찾았다는 맥락이므로 '적합'을 선택해야 알맞다.

4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했을 때 괄호 안에는 문제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나 정보들을 찾아 살피는 태도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탐색하다'는 '사라지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자세히 살펴 찾다.'를 뜻하므로, 괄호 안에는 '탐색'이 들어가야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을 뜻하므로, 원인을 찾아 살피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❷ '달성'은 '목적한 것을 이룸.'을 뜻하므로, 원인을 더듬어 찾는 과정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
❸ '적합'은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음.'을 뜻하므로, 원인을 살피어 찾는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❹ '예측'은 '미리 헤아려 짐작함.'을 뜻하므로, 이미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더 알아두기 '탐색'과 '예측'

'탐색'과 '예측'은 모두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활동이지만, 향하는 시점이 다르다. 탐색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더듬어 찾아 살피는 것으로, 현재나 과거를 향한다. 반면 예측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헤아려 짐작하는 것으로, 미래를 향한다. 이를테면 사건의 숨은 원인을 파헤치는 것은 탐색이고, 내일의 날씨를 미리 헤아리는 것은 예측이다. 정보를 다룰 때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탐색하는 힘과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

2회

본문 113쪽

1 (1) 비방 (2) 준수 (3) 도용
2 (1) 공신력 (2) 오류 (3) 복합 양식
3 ⑤
4 (예시 문장) 우리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1)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비난하는 댓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비방'을 선택해야 알맞다.
(2)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어기지 않고 지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맥락이므로, '준수'를 선택해야 알맞다.
(3) 타인의 창작물을 출처 없이 몰래 가져다 쓰는 행동이 저작권 침해라는 맥락이므로, '도용'을 선택해야 알맞다.

2 (1) 정보의 출처가 정확하고 그 출처가 된 기관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미디어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맥락이므로,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을 뜻하는 '공신력'이 들어가야 알맞다.
(2) 잘못 계산된 통계 숫자를 바로잡았다는 맥락이므로,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뜻하는 '오류'가 들어가야 알맞다.
(3) 오늘날의 인터넷 뉴스가 글자 뿐만 아니라 자막, 소리, 영상 등 둘 이상의 표현 양식을 함께 활용함을 나타내므로 '글, 이미지, 소리,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법이 한데 어우러진 방식.'을 뜻하는 '복합 양식'이 들어가야 알맞다.

3 대중을 속이거나 혼란을 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꾸며 낸 조작된 정보를 나타내므로 '허위 정보'가 알맞다.

오답 노트

❶ '오류'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을 뜻한다. 계산이나 논리상의 실수를 가리키므로,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꾸며 낸 거짓 정보와는 구별된다.
❷ '도용'은 남의 이름이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이므로 거짓 정보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❸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행위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낸 정보를 일컫는 문맥에 부합하지 않는다.
❹ '공신력'은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긍정적 어휘이므로 혼란을 주는 거짓 정보와 반대된다.

더 알아두기 '허위(虛僞) 정보'와 '오(誤)정보'

'허위 정보'와 '오정보'는 모두 사실과 다른 정보이지만, 속이려는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허위 정보는 남을 속이거나 혼란을 줄 목적으로 일부러 꾸며 낸 거짓 정보이고, 오정보는 그런 의도 없이 실수나 착각으로 잘못 전해진 정보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접할 때에는 그 정보가 사실인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의도로 퍼뜨렸는지까지 따져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4 〈보기〉의 내용은 기술의 발전으로 조작된 미디어 정보가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자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인위적'과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수용'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종합 문제 11~13

본문 114~117쪽

01 ①	수능형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⑤	07 ①
08 복합 양식	09 인위적	10 허위 정보	11 ④
12 ②	13 ①	14 ⑤	15 궁극적
16 찰나적	17 영리적	18 ③	19 인식
20 상대성			

01 토론에서 다루는 주제나 문제 전체를 가리키는 '논제'(A),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 여부를 다루는 '사실 논제'(B), 가치 판단이나 신념이 개입되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논제'(C),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실행 방안을 요구하는 '정책 논제'(D)가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수능형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과 신념이 개입된 주장이므로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❶ 고령 사회 진입 여부는 통계 자료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❸ 예산 증액이라는 정책적 행동 방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❹ 법안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❺ 대중문화의 상업화가 청소년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 자료나 통계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02 '절충하다'는 서로 다른 사물이나 의견, 관점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서로 잘 어울리게 하는 과정이지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며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다.

03 어떤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세우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 및 방법을 뜻하는 단어는 '전략'이다. '행동 전략을 수립하다', '논리적 전략을 구상하다'처럼 두 문장의 괄호 안에 모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오답 노트

❶ '입장'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그에 대해 갖는 생각과 태도를 뜻하므로, 수립하거나 구상하는 대상으로 삼기에 어색하다.

❸ '오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을 뜻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

❹ '신념'은 어떤 것을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나 계획을 세운다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❺ '이상'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행동이나 반박 대응 방법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

04 '예상 반론'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제기할 것으로 미리 짐작하는 반대 의견을 뜻한다. 글이나 토론에서 미리 예상 반론을 떠올려 두면, 그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오답 노트

❶ 토론 양측이 합의한 공통의 주제는 '논제'에 대한 설명이다.

❷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드는 구체적 사례는 '근거' 또는 '예시'에 해당한다.

❸ 상대방 주장에서 이치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그 주장이 옳지 않음을 밝히며 맞서는 의견은 '반박'이다.

❹ 독자들이 글쓸이의 의견에 동의하며 보여 주는 반응은 반론이 아닌 '공감'이나 '지지'이다.

05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인과'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노트

❶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식이다.

❷ 두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의 설명 방식이다.

❸ 두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식이다.

❹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식이다.

06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 아래 글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집약되는 성질이다. 한 편의 글 안에서 문장들이 '서로 상반된 주제'를 다룬다면 통일성을 해치게 되므로 '통일성을 긴밀하게 유지했다'는 표현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07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일반적 원리(대전제)로부터 '민수와 영희도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특수한 사실(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오답 노트

❷ '귀납'은 여러 개별적·구체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❸ '유추'은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라 추론하는 방식이다.

❹ '인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❺ '변증법'은 하나의 주장(정)과 그에 맞서는 주장(반)의 대립을 극복하여, 더 나은 결론(합)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08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등 여러 표현 양식이 한데 어우러진 매체를 가리키므로, '복합 양식'이 들어가야 한다.

09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을 대어 자극적으로 만든 편집을 가리키므로, '인위적'이 들어가야 한다.

10 사실이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꾸며 퍼뜨리는 정보를 가리키므로, '허위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11 '공신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자료나 정보가 공적으로 믿을 만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허위 정보가 넘쳐 나는 매체 환경에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와 신뢰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공신력을 확인해야 한다.

오답 노트

❶ 정보를 복합 양식 매체로 빠르게 생성하여 유포하는 것은 공신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무관하다.

❷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영리적 목적 추구는 공신력 판단의 이유가 아니다.
❸ 예상 반론을 무조건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만 관철하는 것은 성숙한 수용 태도가 아니므로, 공신력을 확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❺ 견해를 존중하고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나, 공신력을 확인하는 이유와는 관련이 없다.

12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를 지키는 성숙한 태도와 거리가 멀다.

오답노트
❶ '준수'는 규칙이나 규범을 그대로 좇아 지키는 것이므로, 인터넷 윤리를 지키는 태도에 해당한다.
❸ '정보 보호'는 타인의 개인 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므로, 인터넷 윤리를 지키는 태도에 해당한다.
❹ '비판적 수용'은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여부를 따져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성숙한 매체 이용 태도에 해당한다.
❺ '저작권 존중'은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이므로, 인터넷 윤리를 지키는 태도에 해당한다.

13 '주관'은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을 의미하고, '객관'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을 의미한다. 두 단어는 '자기'를 중심에 두느냐 '자기에게서 벗어나느냐'라는 점에서 서로 맞서므로, '객관'은 '주관'의 유의어가 아니라 반의어이다.

14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태도이다. 그런데 ⑤의 문장은 익명성을 무기로 상대를 헐뜯고 공격한다는 부정적 내용이므로, '존중하는'과 문맥이 서로 어긋난다. '비방하는' 또는 '공격하는'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15 어떤 과정의 마지막이나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는 '궁극적'이다.

16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는 '찰나적'이다.

17 물질적 이익을 꾀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는 '영리적'이다.

18 '적합하다'는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를 뜻한다. 보고서 자료가 주제와 목적에 꼭 알맞은지를 검토한다는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오답노트
❶ '방대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❷ '화려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❹ '타당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❺ '불변하다' 또는 '영원하다'에 대한 설명이다.

19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태도를 심어 준다는 맥락이므로, '인식'이 들어가야 한다.

20 문화적 특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맥락이므로, '상대성'이 들어가야 한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20~121쪽

01 목불식정 **02** 자가당착 **03** 정저지와 **04** 교각살우
05 우이독경 **06** 수주대토 **07** 각주구검 **08** 수레, ㉠
09 숭늉, ㉢ **10** 소, ㉡ **11** 기역, ㉣ **12** 빈대, ㉤
13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01~06

교	단	기	사	자	가	당	착
각	치	자	수	상	후	절	목
살	정	실	위	주	구	약	불
우	이	독	경	삼	대	사	식
자	강	불	식	편	계	토	정
구	밀	정	저	지	와	공	이

07 '각주구검'은 '배에 표시를 새겨 칼을 찾는다.'는 뜻으로, 융통성 없이 낡은 방법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이다. 초나라 사람이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칼을 떨어뜨린 자리를 뱃전에 표시했다가 배가 강가에 다다른 뒤 그 아래에서 칼을 찾으려 한 데서 유래하였다.

13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누나는 방 청소를 안 해 혼난 동생을 나무라지만, 정작 자신도 성적표를 숨긴 잘못을 저질렀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더 큰 잘못을 한 누나가 자신을 흉보는 셈이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는 자기의 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작은 허물을 흉본다는 뜻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가 늘수록 표현할 수 있는 생각도 함께 넓어져요.



독서 영역별 어휘 ❶

14 다름과 공존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26쪽

1 (1) ㉢ (2) ㉡ (3) ㉠
2 (1) 적대시 (2) 방지 (3) 묵살
3 (1) 단절 (2) 악순환 (3) 완화
4 ④

1 (1) '개선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방관하다'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것을 뜻한다.
(3) '회피하다'는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2 (1) 남북이 어떠한 태도로 서로를 상대한다면 통일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서로를 적으로 여겨 보는 태도를 나타내는 '적대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한국은행이 지폐 위조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기 위해 홀로그램을 넣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미리 막음을 나타내는 '방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대학교 측이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다르게 조치하여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의미이므로, 의견이나 제안 따위를 듣고도 모른 척함을 나타내는 '묵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1) 오래된 친구와 단 한번의 갈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게 할 수 없다는 맥락이므로,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인 '단절'이 적절하다. '방관'은 곁에서 보기만 한다는 뜻이다.
(2) 매년 겨울마다 보도블록을 부수고 다시 까는 일을 반복한다는 맥락이므로, 순환이 좋지 않다는 의미인 '악순환'이 적절하다. '회피'는 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뜻한다.
(3) 서로 간의 대립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했다는 맥락이므로, 긴장 상태를 줄인다는 의미인 '완화'가 적절하다. '묵살'은 의견이나 요청을 무시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4 '방관하다'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다.'라는 뜻으로,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하다.'라는 뜻의 '좌시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노트
❶ '단절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의 의미이다.
❷ '방지하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다.'의 의미이다.
❸ '조정하다'는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다.'의 의미이다.
❺ '적대시하다'는 '적으로 여겨 보다.'의 의미이다.

2회 본문 129쪽

1 (1) 이주민 (2) 규정 (3) 양성평등
2 (1) 화합 (2) 포용 (3) 다문화 사회
3 ②
4 (예시 문장)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1 (1) 새로 유입된 어떤 사람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는 맥락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뜻하는 '이주민'이 적절하다.
(2)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삼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지닌 현대적 의의를 새롭게 정의했다는 문맥이므로, 내용이나 성격 등을 밝혀 정함을 뜻하는 '규정'이 적절하다.
(3) 성평등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맥락이므로,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을 뜻하는 '양성평등'이 적절하다.

2 (1) 화목하게 어울림을 뜻하는 말은 '화합'이다. 예문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2)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을 뜻하는 말은 '포용'이다. 예문처럼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때 쓰인다.
(3) 이질적인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뜻하는 말은 '다문화 사회'이다. 예문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유하며 변화해 가는 사회를 나타낼 때 쓰인다.

3 수필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느낌이나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로, 글쓴이는 자연을 관찰하거나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깨달음을 전달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아.'라는 의미의 '관조하여'이다.

오답노트
❶ '공존하여'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여.'라는 의미이다.
❸ '규정하여'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여.'라는 의미이다.
❹ '화합하여'는 '화목하게 어울려.'라는 의미이다.
❺ '차별하여'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여.'라는 의미이다.

4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다.'를 의미하는 '차별하다'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하다.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다.'를 의미하는 '공존하다'를 넣어 문장을 만든다.

더 알아두기 사회적 차별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사회적 차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민 의식을 길러야 하며, 정부는 차별 금지법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 제도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5 역사와 문명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32쪽

1 (1) ㉢ (2) ㉠ (3) ㉡
2 (1) 정복 (2) 도입 (3) 기록
3 (1) 식민지 (2) 교류 (3) 제도
4 ③

1 (1) '동맹'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을 뜻한다.
(2) '문자'는 인간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를 뜻한다.
(3)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뜻한다.

2 (1)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를 무엇을 하여 그 힘이 막강해졌다는 맥락이므로 남의 나라나 이민족 따위를 정벌하여 복종시킴을 뜻하는 '정복'이 적절하다.
(2) 삼국 시대의 건축술이 불교와 함께 발전했다는 맥락이므로,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들인다는 뜻인 '도입'이 적절하다.
(3) 그의 출생이나 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남지 않았다는 맥락이므로, 글이나 자료처럼 어떤 사실을 적어 남긴다는 '기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1) 강대국이 약소국의 권리를 빼앗아 이익을 얻었다는 맥락이므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를 뜻하는 '식민지'가 적절하다. '문화권'은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어떤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를 뜻한다.
(2) 남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행위를 하거나 태도를 보인다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문화나 사상 따위를 서로 통하게 하다는 뜻의 '교류'가 적절하다. '정복'은 남의 나라나 이민족 따위를 정벌하여 복종시킨다는 뜻이다.
(3) '금 본위 제도'라는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체계를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뜻하는 '제도'가 적절하다. '기록'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는다는 뜻이다.

4 '문자'는 인간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를 말한다. 인간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는 음성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멀리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언어를 만들어 내었다.

오답 노트
❶ '기록'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을 뜻한다.
❷ '도입'은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 들임을 뜻한다.
❹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뜻한다.
❺ '문화권'은 공통된 특징을 보이는 어떤 문화가 지리적으로 분포하는 범위를 뜻한다.

2회

본문 135쪽

1 (1) 쇠퇴 (2) 재건 (3) 반정
2 (1) 건국 (2) 즉위 (3) 축출 (4) 시호
3 ①
4 (예시 문장) 정부는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였다.

1 (1) 수산 자원의 감소로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맥락이므로, 기세나 상태가 쇠하여 전보다 못하여 감을 뜻하는 '쇠퇴'가 적절하다.
(2) 불에 타 버린 사찰을 고치기 위해 시주를 받았다는 맥락이므로,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뜻하는 '재건'이 적절하다. '시주'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을 뜻한다.
(3) 성희안, 박원종 등이 일으킨 어떤 일 때문에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맥락이므로,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뜻의 '반정'이 적절하다.

2 (1) 단군 신화가 고조선이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무언가를 보여 준다는 맥락이므로, 나라가 세워짐을 뜻하는 '건국'이 적절하다.
(2)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다른 사람(왕실의 웃어른)이 왕의 후견인 노릇을 했다는 맥락이므로, 임금의 자리에 오름을 뜻하는 '즉위'가 적절하다. '퇴위'는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남을 뜻한다. '후견인'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사람을 뜻한다.
(3)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력한 잡지들을 폐간하고 많은 언론인이 어떻게 되었다는 맥락이므로, 쫓겨나거나 몰아내어짐을 뜻하는 '축출'이 적절하다. '반정'은 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잡음을 뜻한다.
(4) 조선의 정조가 죽은 이후에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문성무열성인장효왕'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맥락이므로, 제왕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을 뜻하는 '시호'가 적절하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을 뜻한다.

3 '군림'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남을 압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으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임금으로서 나라를 거느려 다스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오답 노트
❷ '쇠퇴하다'는 '기세나 상태가 쇠하여 전보다 못하여 가다.'라는 뜻이다.
❸ '재건하다'는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 또는 '없어지거나 쇠퇴한 이념이나 사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다.
❹ '즉위하다'는 '임금이 될 사람이 예식을 치른 뒤 임금의 자리에 오르다.'라는 뜻이다.
❺ '축출하다'는 '쫓아내거나 몰아내다.'라는 뜻이다.

4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다.'를 의미하는 '개혁하다'를 넣어 문장을 만든다.

16 사회의 변화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38쪽

1 (1) 사회 변동 (2) 자유 경쟁 (3) 빈부 격차
2 (1) ㉡ (2) ㉠ (3) ㉢
3 ⑤
4 (1) 안전망 (2) 복지 (3) 산업화

1 (1) 새로운 문화나 문물이 도입되고, 사람들의 인식과 사상의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사회 질서나 구조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하는 '사회 변동'이 적절하다.
(2) 소득의 쏠림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경쟁을 뜻하는 '자유 경쟁'이 적절하다.
(3) 경쟁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의 상태를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뜻하는 '빈부 격차'가 적절하다.

2 (1) '산업화'는 산업의 형태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2) '재분배'는 이미 분배하였던 것을 다시 분배함을 뜻한다.
(3) '사회 변동'은 사회 질서나 구조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3 제시된 글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안전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 안전망'은 노령, 실업, 재해, 질병 따위의 사회적인 위험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오답 노트
❶ '복지'는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❷ '가속화'는 '속도를 더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뜻이다.
❸ '도시화'는 '도시의 문화 형태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발전·확대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는 뜻이다.
❹ '산업화'는 '산업의 형태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이다.

4 (1) 계층 간 양극화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맥락이므로, '안전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 변동'은 사회 질서나 구조가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2) 양로원, 모자원 등을 포함하는 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보장되는 것을 뜻하는 '복지'가 적절하다. '도시화'는 도시의 문화 형태가 그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3)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지구 생태계가 위협받는 원인을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산업의 형태가 되어 간다는 뜻의 '산업화'가 적절하다. '가속화'는 속도를 더한다는 뜻이다.

2회

본문 141쪽

1 (1) 공정 (2) 신장 (3) 보장
2 (1) 기부 (2) 불평등 (3) 약자
3 ③
4 (예시 문장)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1 (1) 판사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의 '공정'이 적절하다. '불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르지 아니함을 뜻한다.
(2)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이 늘었다는 맥락이므로,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남을 뜻하는 '신장'이 적절하다. '불평등'은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을 뜻한다.
(3)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는 맥락이므로,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한다는 뜻의 '보장'이 적절하다. '침범'은 남의 영토나 권리 등을 범하거나 해를 끼침을 뜻한다.

2 (1) 어떤 일을 생활화함으로써 나눔을 베푸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음을 뜻하는 '기부'가 적절하다.
(2) '사회적 차별'의 의미를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을 뜻하는 '불평등'이 적절하다.
(3) 노약자, 장애인, 빈곤층, 외국인 노동자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사회적 약자'가 적절하다.

3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씀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대상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돕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소외 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돕고 보살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배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❶ '권익'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이라는 뜻이다.
❷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뜻이다.
❹ '보장'은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이라는 뜻이다.
❺ '불평등'은 '차별이 있어 고르지 아니함.'이라는 뜻이다.

더 알아두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사회적 약자 역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임.
-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임.
- 차별과 빈곤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계층과 집단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임.

4 앞 문장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빈번한 발생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뒤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써야 한다.

17 경제 원리와 법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44쪽

1 (1) 독과점 (2) 수요 (3) 수익
2 (1) ㉡ (2) ㉠ (3) ㉢
3 ④
4 (1) 공급 (2) 흑자 (3) 창출

1 (1)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맥락이므로, 아주 적은 수의 기업만이 이익을 차지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 '독과점'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2) 음식 배달 및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였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재화나 노동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수요'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3) 각 지방 단체들이 지역 축제 개최, 지역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맥락이므로,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는 '수익'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2 (1) '공급'은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뜻한다.
(2) '절감'은 아끼어 줄임을 뜻한다.
(3) '시장'은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을 뜻한다.

3 '결손액'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생긴 계산상의 손실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을 의미하는 '적자'이다. '적자'는 장부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결손액을 기록할 때 붉은 글자로 기입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오답노트
❶ '공급'은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노동을 제공하는 일 또는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을 뜻한다.
❷ '수요'는 어떤 재화나 노동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뜻한다.
❸ '수익'은 기업이 경제 활동의 대가로서 얻은 경제 가치 또는 이익을 거두어들임을 뜻한다.
❺ '흑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잉여 이익이 생기는 일을 뜻한다. '흑자'는 장부에 기록할 때 흑색 잉크를 사용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4 (1)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을 설명하는 맥락이므로,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뜻하는 '공급'이 적절하다.
(2) 신상품들의 판매가 성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맥락이므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잉여 이익이 생기는 일을 뜻하는 '흑자'가 적절하다.
(3) 대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낸다는 뜻의 '창출'이 적절하다.

2회

본문 147쪽

1 (1) 공공복리 (2) 기본권 (3) 합의
2 (1) 개입 (2) 철회 (3) 조정
3 ⑤
4 (예시 문장)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1 (1) '공공복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나 이익을 뜻한다.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환경 보존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제된다는 맥락이므로 '공공복리'가 적절하다.
(2) '기본권'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 말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맥락이므로 '기본권'이 적절하다.
(3) '합의'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법적 분쟁을 겪던 기업들이 서로 양보하여 뜻을 모았다는 맥락이므로 '합의'가 적절하다.

2 (1) 경찰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들여 조사한다는 맥락이므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개입'이 적절하다.
(2) 자신의 주장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반박하자 그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했다는 맥락이므로, 이미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한다는 의미를 지닌 '철회'가 적절하다.
(3)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위원회가 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는 맥락이므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한다는 뜻을 지닌 '조정'이 적절하다.

3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은 '사회 보장'이다.

오답노트
❶ '제소'는 소송을 제기함을 뜻한다.
❷ '합의'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을 뜻한다.
❸ '기본권'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❹ '공공복리'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나 이익을 뜻한다.

4 '침해하다'는 침범하여 해를 끼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의 다른 대상의 무엇에 침범을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맥락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종합 문제 14~17

본문 148~151쪽

01 ④	02 (1) 개입 (2) 양성평등 (3) 배려 (4) 권익		
03 ⑤	04 ③	05 ②	06 ③
07 ①	08 ③	09 (1) ㉢ (2) ㉠ (3) ㉡ (4) ㉣	
10 ② 수능형 ④		11 ①	12 보장
13 절감	14 공공복리	15 공급	16 기본권
17 철회	18 창출	19 신장	20 사회적 약자

01 '회피하다'는 피하거나 면하려 하는 것을 뜻하므로, 상대방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감싸 안는다는 뜻을 가진 '포용하였다'로 바꾸어 써야 문맥상 알맞다.

02 (1)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건에 직접 끼어들었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일에 직접 끼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개입'이 적절하다.
(2) 남성과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맥락이므로, 남성과 여성의 권리, 의무, 자격이 평등함을 뜻하는 '양성평등'이 적절하다.
(3) 타인에 대한 존중과 무엇이 바탕이 될 때 사회적 갈등이 줄어든다는 맥락이므로, 이리저리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배려'가 적절하다.
(4)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는 맥락이므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뜻하는 '권익'이 적절하다.

03 '적대시하다'는 적으로 여겨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답 노트

❶ '방관하다'는 어떤 일에 직접 상관하지 않고 곁에서 바라보기만 함을 의미한다.
❷ '침범하다'는 남의 영역이나 권리를 침해하여 들어감을 뜻한다.
❸ '방지하다'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막음을 의미한다.
❹ '신장하다'는 세력이나 권리 따위를 크게 넓히거나 세움을 뜻한다.

04 '방지'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미리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노트

❶ '규정'은 규칙을 정하여 놓음 또는 그 정해 놓은 내용을 뜻한다.
❷ '군림'은 어떤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 타인을 지배함을 뜻한다.
❹ '관조'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을 뜻한다.
❺ '화합'은 화목하게 어우러짐을 뜻한다.

05 이 글은 과거와 달리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는 차별 없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며 공존과 사회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 "단지 출신이나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노트

❶ 과거 사회는 문화권 간의 경계가 엄격하여 통합이 쉽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❸ 현대에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이주민과의 공존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대 사회에는 각 집단의 지리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❹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는 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을 도모하는 핵심 요소이다.
❺ 이주민과의 공존은 전통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대등하게 인정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06 '이주민'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을 뜻한다. 본디 그 지역에 거주하며 고유한 문화를 지켜온 사람은 '원주민'이다.

07 '축출되다'는 어떤 무리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몰아내어짐을 뜻하므로 '쫓겨났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노트

❷ '도입되었다'는 기술이나 물자 따위를 새로 들여왔다를 뜻한다.
❸ '통합되었다'는 하나로 합쳐졌다를 의미한다.
❹ '재건되었다'는 무너진 건물이나 조직이 다시 세워졌다를 뜻한다.
❺ '건국되었다'는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를 의미한다.

08 '흑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이익이 생기는 일이고 '적자'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손실이 생기는 일을 의미하므로 두 어휘는 반의 관계이다.

오답 노트

❶ '공존'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을, '동존'은 같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❷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을, '개변'은 상태, 제도, 시설 따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침을 의미한다.
❹ '화합'와 '화해'는 모두 화목하게 어울림을 의미한다.
❺ '공공복리'와 '공공복지'는 모두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를 의미한다.

09 (1) '도시화'는 도시의 문화 형태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발전·확대됨을 뜻한다.
(2) '산업화'는 산업의 형태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뜻한다.
(3) '빈부 격차'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뜻한다.
(4) '사회 변동'은 사회 질서나 구조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10 (A)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답 노트

❶ (A)는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자유 경쟁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을 다시 나누는 정책이다.
❸ (B)는 계층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며 특정 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❹ (B)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기업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
❺ (A)와 (B) 모두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할 뿐 도시화 현상을 직접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수능형 '소득 재분배 정책'은 누진세 적용 등의 세제 개편과 복지 정책, 사회 보장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제도이다.

오답 노트

❶ 시장의 자율성 극대화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자유 경쟁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와는 방향이 다르다.

❷ 단순한 기술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도모만으로는 소득이 약자에게 다시 분배되는 정책적 효과를 직접 거두기 어렵다.

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철회하는 것은 사회 보장 제도를 퇴보시키는 정책이므로 소득 재분배와 거리가 멀다.

❺ 독과점 규제를 철폐하면 일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11 〈보기〉의 문장은, 국가의 국력이 기울자 새로운 국왕이 등장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에는 세력이나 기세가 기울어 전보다 못해지는 것을 뜻하는 '쇠퇴'가, ㉡에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뜻하는 '즉위'가 적절하다.

오답 노트

❷ '반정'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왕을 교체하는 정치적 변란을 뜻하므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상황과 다르다.

❸ '개혁'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며, '도입'은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뜻이므로 나라가 기울고 왕위에 오른다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❹ '개혁'과 '반정'은 모두 〈보기〉의 문맥과 거리가 있다.

❺ '관조'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건국'은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나라의 기틀을 일으키는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다.

12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맥락이므로,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을 뜻하는 '보장'이 적절하다.

13 과도한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좋게 바꾸었다는 맥락이므로, 아끼어 줄임을 뜻하는 '절감'이 적절하다.

14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맥락이므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를 의미하는 '공공복리'가 적절하다.

15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생산비 부담 때문에 무엇이 감소했다는 맥락이므로,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을 의미하는 '공급'이 적절하다.

16 헌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으뜸가는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17 이미 제출하였던 안건이나 결정된 파업 방침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는 행동을 '철회'라 한다.

18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없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과정을 '창출'이라 한다.

19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를 예전에 비해 더 높게 세우는 것을 '신장'이라 한다.

20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점이나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기 쉬운 계층을 '사회적 약자'라 부른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54~1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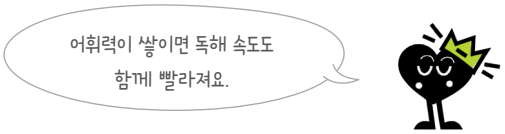
01 〈가로〉 ❶ 사촌 ❸ 자라 ❹ 약, 〈세로〉 ❶ 사람 ❷ 지푸라기
02 남의 손의 떡은 커 보인다
03 간담, 서늘하다
04 가슴, 새기다
05 어깨, 견주다
06 마음, 풀리다
07 옆구리, 찌르다
08 엉덩이가 근질근질

01

❶ 사	촌		❷ 지
람			푸
		❸ 자	라
❹ 약			기

02 만화에서 여동생은 오빠가 들고 있는 솜사탕이 더 커 보여서 바꿔 먹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솜사탕을 바꾼 후에도 여동생은 오빠 손에 들어간 원래 자신의 솜사탕이 다시 더 커 보이자, 또다시 바꾸자고 말한다. 이를 본 오빠는 웃으며 "원래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법이야."라고 말한다. '남의 손의 떡은 커 보인다'는 물건은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제 일보다 더 쉬워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그림 속 여동생처럼 실제로는 크기나 품질에 별 차이가 없거나 같더라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탐이 나고 더 좋게 보이는 사람의 심리를 잘 보여 준다.

08 예지가 주말 내내 집에 있었다며 잠깐 볼까 했다는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빈칸에는 한군데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 움직이고 싶어 함을 뜻하는 관용 표현인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독서 영역별 어휘 ②

18 과학과 기술 탐구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60쪽

1 (1) ㉢ (2) ㉠ (3) ㉡ (4) ㉣
2 (1) 검증 (2) 실험 (3) 가설 (4) 조사
3 (1) 통계 (2) 분포
4 ⑤

1 (1) '가설'은 탐구 과정에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세우는 논리적 추측에 해당한다.
(2) '분포'는 특정 자원, 인구, 기후 등의 요소가 일정한 공간 내에 퍼져 있는 양상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3) '사례'는 주장이나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과거의 실제 경험이나 구체적인 모범에 해당한다.
(4) '표본'은 전체 집단(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일부를 추출하여 그 특성을 조사·분석할 때 쓰이는 자료이다.

2 (1) 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문맥이다. 따라서 '검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인공 강우'란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인공 강우를 실제로 발생시켜 그 효과를 확인했다는 문맥이므로, '실험'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과학자가 자신이 임시로 세운 가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근거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는 문맥이므로, '가설'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4)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아야 한다는 문맥이다. 따라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 (1) 설문 조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숫자로 정리하고 집계하는 일을 뜻하므로 '통계'가 알맞다.
(2) 천연자원이 일정한 지역 내에 흩어져 퍼져 있는 상태나 모양을 가리키므로 '분포'가 알맞다.

4 첫 번째 문장에서는 '표본'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표본'이 '여러 통계 자료를 포함하는 집단 속에서 그 일부를 뽑아내어 조사한 결과로써 본디의 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단어는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노트
❶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뜻한다.
❷ '검증'은 검사하여 증명함을 뜻한다.
❸ '사례'는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뜻한다.
❹ '통계'는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을 뜻한다.

2회 본문 163쪽

1 (1) 전망 (2) 정교 (3) 실용화
2 (1) 장착 (2) 향상 (3) 입자
3 ⑤
4 예시 문장 신소재 개발 성공에 하반기 수출 전망도 낙관적

1 (1) 수출이 부진하다는 현재의 악재로 인해 향후 경제 불황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앞날의 상황을 예측하여 가늠한다는 맥락에 알맞은 '전망'이 들어가야 한다.
(2) 시곗바늘 주위의 세공 솜씨가 매우 뛰어남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만듦새가 매우 정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의 '정교'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세공'은 '잔손을 많이 들여 정밀하게 만듦. 또는 그런 수공.'을 뜻한다.
(3) 전기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기술이나 제품 따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실용화'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1) 폭설에 대비하여 바퀴에 체인이라는 안전장치를 미리 달거나 갖추어 운행하는 차량을 나타내므로 '장착'을 선택하는 것이 알맞다.
(2) 농사 기술의 수준이 과거보다 한층 발전하여 생산성이 대폭 늘어난 맥락이므로, 기술이나 실력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감을 나타내는 '향상'을 선택하는 것이 알맞다.
(3) 미세한 먼지가 바람을 타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물질을 이루는 매우 미세한 크기의 물체를 의미하는 '입자'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열을 가하거나 화학 첨가물을 넣는' 가공식품의 특징을 고려할 때, 빈칸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인공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이때 '가공'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노트
❶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 또는 물질의 일부로서, 구성하는 물질과 같은 종류의 매우 작은 물체를 뜻한다.
❷ '고분자'는 화합물 가운데 분자량이 대략 1만 이상인 분자 또는 화학 결합으로 거의 무한 개수의 원자가 결합하여 있는 분자를 뜻한다.
❸ '낙관적'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것 또는 앞으로의 일 따위가 잘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
❹ '실용화'는 실제로 쓰거나 쓰게 함을 뜻한다.

4 기사 본문은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신소재 고분자 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이 잘되어 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는 뜻의 '낙관적'을 활용하여, 기술 성공 소식과 밝은 수출 전망을 결합한 제목을 지을 수 있다.

더 알아두기 **'낙관적'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흔히 "장밋빛 미래를 꿈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미래를 밝고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장밋빛'은 단순히 장미 꽃잎의 빛깔과 같은 짙은 빨간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이거나 희망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9 지구 과학과 기술 발전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66쪽

1 (1) ㉡ (2) ㉠ (3) ㉢
2 (1) 화산 활동 (2) 지각 (3) 분화구
3 (1) 암석 (2) 진원
4 ④

1 (1) '지진대'는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가리킨다.
(2) '화산대'는 화산이 다수 분포하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대를 가리킨다.
(3) '풍화 작용'은 공기, 물, 햇빛, 생물 등의 자연적 영향으로 인해 지표면의 암석이 점차 부서지고 깎여 나가는 현상을 가리킨다.

더 알아두기 '지진'과 '화산'

지진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화산	땅속에 있는 가스, 마그마 따위가 지각의 터진 틈을 통하여 지표로 분출하는 지점. 또는 그 결과로 생기는 구조.

2 (1) 활화산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등 현재 화산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화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화산을 말한다. 따라서 '화산 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들이 지구 표면을 이루는 거대한 판과 암석층의 움직임에 의해 생겨났음을 보여 주는 맥락이므로 '지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화산 폭발 시 용암이나 가스가 뿜어져 나온 흔적으로, 화산의 정상부에 오목하게 파인 구멍 지형을 가리키므로 '분화구'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1) 현무암은 용암이 굳어 형성된 암석의 한 종류로, 이러한 현무암과 강도를 비교하는 대상 역시 암석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암석'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지하 10km 지점', '깊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표면 아래의 실제 발생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진원'이 알맞다. 만약 지표상의 위치나 지역 이름이 언급되었다면 '진앙'이 정답이 된다.

4 제시된 글은 지표를 구성하는 암석이 햇빛, 공기, 물, 생물 따위의 작용으로 점차로 파괴되거나 분해되는 일을 의미하는 '풍화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노트
❶ '지각'은 지구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부분을 뜻한다.
❷ '분화구'는 화산체의 일부에 열려 있는 용암과 화산 가스 따위의 분출구를 뜻한다.
❸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쉬운 지역을 뜻한다.
❺ '화산 활동'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작용을 뜻한다.

2회

본문 169쪽

1 (1) 신호 (2) 모터 (3) 센서
2 (1) 구동 (2) 명령 (3) 소프트웨어
3 ⑤
4 (예시 문장) 컴퓨터에 인쇄할 내용을 입력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자 인쇄물이 깨끗하게 출력되었다.

1 (1) 구조대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외부로 보내는 알림이나 의사표시를 포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맥락이므로 '신호'가 들어가야 알맞다.
(2) 전기 에너지를 강력한 회전력과 같은 물리적 동력으로 바꾸어 기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를 가리키므로 '모터'가 들어가야 알맞다.
(3) 자율 주행 자동차의 부품 중 주위의 사물이나 장애물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지하는 감지 장치를 뜻하므로 '센서'가 들어가야 알맞다. 여기서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2 (1) 친환경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삼아 기계나 장치 전체 시스템을 직접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구동'을 선택해야 알맞다.
(2)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맥락이므로 '명령'을 선택해야 알맞다.
(3)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기기에 설치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맥락이므로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알맞다.

더 알아두기 하드웨어(hardware)

컴퓨터는 몸체인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로 크게 구별되어 나뉜다.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하드웨어는 본체와 주변 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본체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로, 주변 장치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다시 구분된다.

3 제시된 글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 처리 기술과 실제 기계의 물리적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산업 및 의료 현장에 쓰이는 지능형 장비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로봇 공학'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노트
❶ '입력'은 컴퓨터나 기기에 처리할 정보나 명령을 넣는 작용을 나타낸다.
❷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을 작성하는 작업을 나타낸다.
❸ '출력'은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물을 화면, 소리, 인쇄물 등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작용을 나타낸다.
❹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을 나타낸다.

4 '문자나 숫자를 컴퓨터가 기억하게 하는 일.'을 의미하는 '입력'과 '컴퓨터 따위의 기기나 장치가 입력을 받아 일을 하고 외부로 결과를 내는 일.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하는 '출력'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20 미술과 건축

문제로 익히기

1회

본문 172쪽

1 (1) ㉢ (2) ㉠ (3) ㉡
2 (1) 농담 (2) 산수화 (3) 원근법
3 (1) 재현 (2) 표출 (3) 초상화
4 ⑤

1 (1) '수묵화'는 먹의 짙고 엷음을 조절하여 자연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회화 기법을 나타낸다.
(2) '자화상'은 화가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그린 그림을 가리킨다.
(3) '초상화'는 살아 있는 인물의 실제 모습이나 얼굴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림을 가리킨다.

2 (1) 해당 수묵화가 산의 위치에 따라 구별되는 자연스러운 색깔을 먹의 짙고 옅은 정도를 달리하여 그린 그림이라는 맥락이다. 따라서 색깔이나 명암 따위의 짙음과 옅음을 뜻하는 '농담'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자연을 보고 받은 인상을 자신의 화풍으로 표현한 그림이라는 맥락이므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인 '산수화'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평면의 종이 위에서 사물의 크기 차이와 명암 대비를 활용하여 실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현 기법을 가리키므로 '원근법'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화풍(畫風)

'화풍'이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양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이 특징인 화풍을 보여 준다.

3 (1) 조선백자의 형태적 특징인 우아한 곡선을 현대의 도공들이 그대로 다시 만들어냈다는 맥락이므로, '재현'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고려청자가 당시 고려인이 추구하던 불교적 세계의 미적 감각과 정신을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 준 맥락이므로 '표출'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인물의 외양뿐만 아니라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성격과 같은 특징까지 드러낸다는 맥락이므로, 사람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인 '초상화'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4 '자기 자신을 종이에 옅은 채색으로 그린 그림', '자신의 얼굴을 묘사하여' 등으로 볼 때, 빈칸에는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뜻하는 '자화상'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오답 노트

❶ '농담'은 색깔이나 명암 따위의 짙음과 옅음, 또는 그런 정도를 뜻한다.
❷ '산수화'는 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을 뜻한다.
❸ '수묵화'는 먹으로 짙고 엷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뜻한다.
❹ '원근법'은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와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을 뜻한다.

2회

본문 175쪽

1 (1) 질감 (2) 채광
2 ⑤
3 (1) 고안 (2) 비례 (3) 역동감
4 예시 문장 이 건물은 좌우의 크기가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 시각적 균형감이 뛰어나다.

1 (1) 미술 재료인 흙을 만졌을 때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다는 맥락이므로,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받는 느낌을 뜻하는 '질감'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큰 창을 통해 햇빛이 잘 들어와 낮 동안 거실 전체가 밝다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창문 등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채광'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이 글은 거리, 공원, 광장 따위의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전시하는 미술인 '공공 미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노트

❶ '비례'는 표현된 물상의 각 부분 상호 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이 양적으로 일정한 관계가 됨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한다.
❷ '질감'은 재료가 가지는 성질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을 뜻한다.
❸ '채광'은 창문 따위를 내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❹ '건축'은 집이나 성, 다리 따위의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여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따위를 써서 세우거나 쌓아 만드는 일을 뜻한다.

3 (1) 새로운 경영 체제를 깊이 연구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영 체제를 새롭게 생각해 냈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사원들의 호응을 끌어낼 만한 방안을 창안했음을 나타내는 '고안'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2) 건축가들이 건축물의 부분과 부분, 또는 전체와 부분이 양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맥락이므로, 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3) 사이다의 맑고 시원한 느낌을, 힘차고 활발한 느낌을 주는 회오리바람이나 폭포수 등으로 표현했다는 맥락이므로, '역동감'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더 알아두기 '회오리바람'과 '폭포수'

회오리바람	갑자기 생긴 저기압 주변으로 한꺼번에 모여든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선회(旋回) 운동.
폭포수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4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고른 감각.'을 의미하는 '균형감'을 넣어 문장을 만든다.

종합 문제 18~20

본문 176~179쪽

01 (1) 사례 (2) 조사 (3) 가설 **02** ③ **03** ④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① **09** ⑤ **10** ④ 수능형 ②
11 ① **12** ① **13** 환기 **14** 재현
15 비례 **16** 공공 미술 **17** 수려하다 **18** 고안하다
19 원근법 **20** 자화상

01 (1)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실을 뜻하는 단어는 '사례'이다.
(2)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의 실태나 현상을 살펴 파악하는 행동은 '조사'이다.
(3)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전 단계에 설정한 가정을 뜻하는 단어는 '가설'이다.

02 '실용화'는 실제로 쓰거나 쓰이게 한다는 뜻이다. ③의 내용 중 작년까지 사용한 기종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하므로, 올해에 새롭게 '실용화 대상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다.

오답노트
❶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알갱이나 물질의 최소 단위를 뜻하므로 단어의 쓰임은 적절하다.
❷ 미래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태도와 부합하므로 '낙관적'의 쓰임은 적절하다.
❹ 기상청이 내일 오전의 날씨를 미리 내다보아 알리고 있으므로 '전망'의 쓰임은 적절하다.
❺ 기계의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비의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므로 '조사'의 쓰임은 적절하다.

03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통계'이다.

오답노트
❶ '실험'은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❷ '사례'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예를 의미한다.
❸ '표본'은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의미한다.
❺ '환기'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04 '검증'은 어떤 명제나 이론의 참과 거짓을 사실에 비추어 검사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뜻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다.

오답노트
❶ '가설'은 검증을 거치기 전 단계에 세우는 가정된 주장을 뜻하므로 실험을 통한 확인 단계에 맞지 않다.
❸ '환기'는 주의나 관심, 기분을 새로이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❹ '분포'는 사물이나 수치가 일정 영역에 퍼져 존재하는 상태를 뜻한다.
❺ '전망'은 앞날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05 '표본'은 집단 전체에서 뽑아낸 일부 대상이고 '모집단'은 관찰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뜻하므로 두 단어는 유의 관계가 아니라 부분과 전체의 관계이다.

06 지구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겉층은 '지각'이며, 암석이 공기나 물 등에 의해 잘게 부서지거나 성질이 변하는 자연 현상은 '풍화' 작용이다.

07 '독창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내는 성질을 뜻한다. '남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 따르는 성질.'은 '모방성'에 해당하므로 올바르지 않다.

08 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을 '산수화'라고 한다.

09 '비례'는 표현된 물상의 각 부분 상호 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이 양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한다. 비너스 조각상의 상체와 하체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나타내므로 '비례'는 문맥에 알맞다.

오답노트
❶ '구동'은 동력을 얻어 움직이는 것을 뜻하므로, 시동을 끄고 달리는 맥락과 상충된다.
❷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알갱이를 뜻하므로 거대한 행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부적절하다.
❸ 우려를 샀다는 문맥상 점유율이 떨어진 것이므로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짐을 뜻하는 '향상'은 문맥에 맞지 않다.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짐.'을 뜻하는 '저하/하락'이 문맥상 알맞다.
❹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무형 자산을 뜻하므로 나무 연필이나 지우개는 해당하지 않는다.

더 알아두기 **황금 비례**

고대부터 인간의 신체 각 부위를 연구하여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비례를 말한다. 1 : 1.618의 비례로, 신전이나 예술품을 제작할 때 적용되었다.

10 지문에서 정보를 기억하게 만드는 ㉮ 단계는 '입력'에 해당하고, 작업 수행 결과를 외부로 내보내는 ㉯ 단계는 '출력'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컴퓨터의 입출력 과정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인 '모터'가 구동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❷ 외부의 빛이나 소리를 감지하는 장치는 '센서'이다.
❸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문을 쓰는 일은 '코딩'이며, 동력을 가해 움직이는 일은 '구동'이다.
❺ ㉮는 정보를 기억하는 '입력'이고 ㉯는 결과를 내보내는 '출력'이므로 스스로 정보를 창조하거나 자극을 수용하는 단계라는 설명은 틀리다.

수능형 글에서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단계를 ㉮(입력)라고 정의하였다. 〈보기〉의 (B)는 거리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입력 과정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노트
❶ (A)에서 장애물을 감지하는 부품은 동력 장치인 '모터'가 아니라 자극을 알아채는 '센서'에 해당한다.
❸ (C)는 컴퓨터가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산 단계이며, 사람이 코딩하는 단계가 아니다.
❹ (D)는 모터가 돌아가는 구동 및 동작 단계이며, 외부로 최종 결과를 내놓는 ㉯(출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E)의 피하는 동작(출력)은 (B)에서 거리 데이터를 입력받아 저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11 '센서'가 물리적 환경의 변화(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오답노트

② '신호'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해 놓은 표시나 기호를 뜻한다.
③ '명령'은 시스템이나 기계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④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을 뜻한다.
⑤ '모터'는 전기 에너지로 부터 회전력을 얻는 기계를 뜻한다.

12 '낙관적'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거나 앞으로의 일이 잘되어 갈 것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오답노트

② '인공적'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③ '장착'은 의복, 기구, 장비 따위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실용화'는 실제로 쓰거나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향상'은 실력, 수준, 기술 따위가 나아지는 것 또는 나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13 실내의 탁한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로 순환시켜 바꾸는 일은 '환기'이다. '배기'는 속에 든 공기, 가스, 증기 따위를 밖으로 뽑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14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생각을 예술 작품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재현'이다.

15 표현된 물체의 각 부분 간, 또는 전체와 부분 간이 양적으로 일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비례'라 한다.

16 광장이나 공원 등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미술 작품을 '공공 미술'이라 한다.

17 경치나 모양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상태를 뜻하는 문장 속 단어는 '수려하다'이다.

18 새로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연구하여 머릿속으로 생각해 내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는 '고안하다'이다.

19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와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멀고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은 '원근법'에 해당한다.

20 화가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대상으로 삼아 직접 그린 초상화를 뜻하는 단어는 '자화상'이다

알면 든든 우리말 표현

확인 문제

본문 182~183쪽

01 위국충절	02 견마지심	03 반포보은	04 일편단심
05 독야청청	06 풍수지탄	07 망운지정	08 ㄴ
09 ㄹ	10 ㄱ	11 ㄷ	12 ㅁ
13 뼈	14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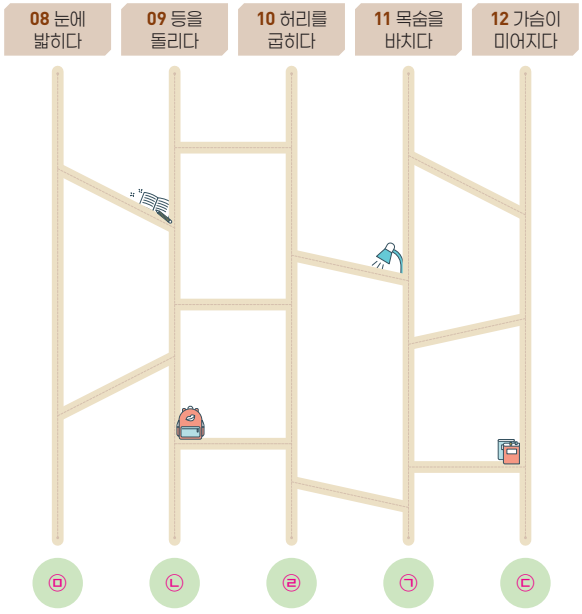
05 '독야청청(獨也靑靑)'은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더 알아두기 **낙락장송(落落長松)**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를 뜻하며, 굳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나 고고한 품격을 가진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07 '망운지정'은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08~12



memo

